



농업·농촌경제동향

2011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정책지원팀

(한재환 jhhan@krei.re.kr/조우림 urimcho@krei.re.kr/

장도환 zzangdh@krei.re.kr)

연락처: 02-3299-4353 / 팩스: 02-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0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13
2. 농림어업 취업자	19
3. 농축수산물 수출입	21
4.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조기경보지수	27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3
2. 채소	38
3. 과일	52
4. 과채	58
5. 축산	66

특별 주제 1. 선진국의 구제역 대책 사례와 시사점	77
2. 축산업 선진화 방안	100

【요약】

I. 국내경제 동향

- 201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 2011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였으나 내구재 지출이 늘어나 전분기 대비 0.5%증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함.
- 2011년 1/4분기 총수출은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재화수출이 늘어 전분기 대비 3.3%증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함.
- 2011년 1/4분기 총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소비가 회복되어 전분기 대비 1.2% 증가,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함.
- 2011년 3월 취업자는 전월 대비 51만명 증가, 전년 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한 2,384만 6천명임.
- 201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감소,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실질로는 1.2% 감소).
- 2011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로 전분기 대비 1.8% 상승,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함.
- 2011년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3.1로 전분기 대비 3.2% 상승, 전년 동기대비 6.7% 상승함.
- 2010년 4/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분기 대비 3.0% 증가,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분기 대비 1.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함. 2011년 2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현금통화 및 수시입출식 예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전월 대비 0.7% 증가, 전년 동월대비 11.5% 증가함. 2011년 2월중 광의통화(M2, 평잔)는 정부 및 기업부문신용 하락과 해외 부문 신용도 감소로 전월 증가율(6.5%)보다 하락하여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대비 5.0% 증가율을 기록함.

- 3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증가(1,128원)대비 31원 하락한 1,097원임.
- 일본 대지진 등으로 3월 15일 1,135원까지 상승하였으나, G7의 공조개입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1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7로 전분기 대비 6.0% 상승, 전년 동기대비 12.9% 상승함.
- 2011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로 전분기 대비 1.8%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함.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였으나 보리(과맥)는 0.2%(111.8), 무는 44.4%(135.6), 마늘(난지)은 3%(269.5), 느타리는 2.2%(102.8) 하락함.
- 2011년 3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32.3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4.5% 상승함.
- 2011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207천 명으로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함.
- 2011년 1/4분기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총 15억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2% 증가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958백만 달러로 인삼, 채소종자, 유자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함.

- 2011년 1/4분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74억 7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선진국의 구제역 대책 사례와 시사점

- 일본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가별 매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구제역이 확산되었던 2010년 5월에 이동제한지역(10km이내) 가축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후 매몰처분을 한 바 있음.
- 중국의 경우 구제역 발생 시 매몰처분 후 매몰 또는 소각하며, 통상적으로 시가의 60~70%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구제역(FMD)과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발생시, 축산농가의 신고 유도 및 신속한 매몰처분을 위해 농가에 시세(Full Market Value)로 보상하고 있음. 질병종류에 따라, 농가 보상 수준은 매몰처분 가축의 질병 감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MD는 가축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
- 캐나다는 매몰처분 가축, 폐기처분 대상 사료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처분 가축 보상 규정 등에 따라 처분시점의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보상함.
- 현행 3단계 경보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평시에 충분한 방역자재를 비축하고, 단계별 대응체계의 재정비와 주기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 관련 기관의 업무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시에 충분한 방역자재를 비축하고, 단계별 대응체계의 재정비와 주기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 축종별·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밀집축사지역과 일반 농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SOP 보완작업이 필요함.

- 최초 질병 발생 진단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과 질병 발생 확진 및 대응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앙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가축위생시험소와의 업무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3. 기타 방역 관련 고려사항

- 현재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만약 앞으로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함. 이때 백신접종에서 누락된 가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백신접종 가축의 항체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함.

2. 축산업 선진화 방안

- 2010년 들어 1월, 4월, 11월에 걸쳐 구제역이 3차례 발생함. 특히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조기 종식을 위해 초기에는 질병 양성축 살처분과 함께 예방적인 살처분 위주로 방역 조치를 취함. 그러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와 돼지에 대한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함.
- 정부는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서 방역체계 개편, 가축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제 등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들과 함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조기 획득 추진을 발표함.
- 질병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함.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차단방역 시설설치 및 질병 방역 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또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함.
-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화함.

I.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1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지속됨.
 - 농림어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업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철강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9.9% 증가함.
 - 서비스업은 한파로 인한 여가활동 위축으로 문화·오락은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금융보험 등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함.
- 2011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영상음향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 전분기 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함.
- 2011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전분기 대비 6.7% 감소, 전년 동기대비 11.9% 감소하였음.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는 0.8%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함.
- 2011년 1/4분기 총수출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등 재화수출이 증가해 전분기 대비 3.3% 증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함.
- 2011년 1/4분기 총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국내소비 회복세로 인해 전분기 대비 1.2% 증가,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p					2011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0.3	6.2	8.5	7.5	4.4	4.7	4.2
최종소비지출	1.2	3.9	5.9	3.4	3.4	3.0	2.7
(민 간)	0.0	4.1	6.6	3.5	3.6	2.9	3.0
총고정자본형성	-1.0	7.0	12.5	6.8	6.8	3.4	-2.2
(건 설)	3.4	-1.4	4.3	-2.3	-3.1	-2.9	-11.9
(설 비)	-9.8	25.0	29.1	30.5	26.6	15.9	12.0
총 수 출	-1.2	14.5	16.7	14.5	11.6	15.7	16.8
총 수 입	-8.0	16.9	21.5	18.0	14.7	14.2	10.8

주: 2010p, 2011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1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GDP 성장률은 각각 4.0%,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민간소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IT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예상이며,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 2011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0p	2011 ^{e)}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6.2	4.1	3.8	4.0	4.9	4.5
민 간 소 비	4.1	3.5	3.4	3.4	3.5	3.5
건 설 투 자	-1.4	-7.1	0.8	-2.6	5.1	1.5
설 비 투 자	25.0	12.5	6.4	9.3	4.7	6.9
상 품 수 출	15.8	18.0	10.3	13.9	8.9	11.2
상 품 수 입	18.2	13.4	8.6	10.9	10.6	10.8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1.4.13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수정)을 참고함.

2. 2010p는 잠정치, 2011^{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1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분기 대비 1.2% 감소,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9%로 전년 동기 4.3%보다 0.4%p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보다는 0.5%p 증가함.
- 2011년 3월 취업자는 23,846천명으로 전월 대비 510천명 증가, 전년 동월대비 469천명 증가함.
- 3월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전년 동월보다 0.2%p 증가하였고, 전월과는 비슷한 수준임.
- 3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198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95천명), 농림어업(71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5천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50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3천명)은 감소하였음.

【 고 용 활 동 】

단위: 천명, %

	2009	2010					2011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4,394	24,748	24,166	25,038	24,993	24,796	24,488	1.3
(경제활동참가율)	60.9	61.0	59.8	61.8	61.5	60.8	59.9	0.2
취업자	23,506	23,829	23,037	24,170	24,120	23,989	23,459	1.8
· 농림어업	1,648	1,567	1,235	1,733	1,754	1,544	1,207	-2.3
· 광공업	3,859	4,049	3,934	4,035	4,072	4,153	4,163	5.8
(제조업)	3,837	4,028	3,911	4,015	4,053	4,131	4,139	5.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7,999	18,214	17,868	18,402	18,293	18,292	18,090	1.2
(건설업)	1,720	1,753	1,644	1,816	1,791	1,761	1,641	-0.2
실업자	889	920	1,130	868	873	808	1,028	-9.0
실업률(계절조정)	-	-	4.3	3.4	3.6	3.4	3.9	-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0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2010년 2월 소매판매는 명절성수품 판매가 전월에 선반영 되었고 유가상승, 구제역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월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대비 0.8%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 내구재(-2.2%), 준내구재(-8.8%) 및 비내구재(-7.7%) 판매가 모두 감소하였음.
 - 전년 동월대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식료품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비내구재(-6.9%) 판매는 감소함.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향후 소비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대지진 및 방사능 누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09.5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2011p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소매판매	2.6	6.6	9.7	4.9	7.5	5.1	10.6	-0.8
(내구재) ¹	8.1	14.9	29.6	5.6	17.0	10.6	14.0	9.0
(준내구재) ²	0.3	6.8	2.5	6.2	6.6	11.1	11.1	2.3
(비내구재) ³	1.2	2.2	3.2	3.3	3.0	-0.7	9.3	-6.9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실질로는 2.8% 증가)함.
 - 경상소득은 6.0% 증가, 비경상소득은 1.8% 증가함.
 - 근로소득(5.0%), 사업소득(7.7%), 이전소득(9.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감소,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실질로는 1.2% 감소)함.
-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실질로는 3.9% 증가)함.
 -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5%), 오락·문화(12.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0만 8천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대비는 4.2% 증가(실질로는 1.3% 증가)함.
 - 전년 동기대비로 살펴보면 의류·신발(13.1%), 오락·문화(15.6%) 등은 증가한 반면, 교통(-7.7%), 교육(-0.5%) 등은 감소함.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 득	1.5	0.8	-0.1	-0.7	4.9	5.8	7.3	7.7	6.1	2.4
소비 지출	1.9	-3.5	1.4	2.7	7.3	6.4	9.5	6.8	5.4	4.2
(식료품)	-0.1	-3.5	1.2	-3.2	-0.2	6.5	4.5	3.6	10.0	7.8
(교 육)	7.2	3.9	4.4	6.3	5.9	2.4	4.9	1.1	2.7	-0.5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1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로 전분기 대비 1.8%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함.
-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4.7% 상승하여 2011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4% 대 상승세를 보임.
 - 상품은 전월대비 0.8%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7.9% 상승하였음.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 동월대비 14.9% 상승하였으며,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 동월대비 5.9%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음.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12.8 (2.8)	116.1 (2.9)	114.6 (2.7)	115.6 (2.6)	116.6 (2.9)	117.6 (3.6)	119.7 (4.5)
상 품	113.6 (3.3)	118.8 (4.6)	116.2 (3.8)	117.9 (3.8)	119.7 (4.7)	121.5 (6.2)	125 (7.6)
농축수산물	108.9 (6.4)	119.8 (10.0)	113.1 (3.6)	116.5 (5.1)	122.3 (12.5)	127.3 (19.2)	131.9 (16.6)
공업 제품	114.9 (2.5)	118.5 (3.1)	117.1 (3.9)	118.3 (3.4)	118.9 (2.5)	119.8 (2.8)	123 (5.0)
서 비 스	112.2 (2.4)	114.3 (1.8)	113.6 (2.0)	114.1 (1.9)	114.6 (1.8)	115.0 (1.9)	116.3 (2.4)
집 세	106.2 (1.6)	108.1 (1.8)	107.2 (1.4)	107.8 (1.8)	108.4 (2.0)	109.1 (2.2)	110.2 (2.8)
공공서비스	111.4 (1.9)	112.7 (1.2)	112.5 (1.7)	112.4 (1.3)	112.9 (0.9)	113.1 (0.9)	113.6 (1.0)
개인서비스	114.3 (2.8)	116.8 (2.2)	115.9 (2.3)	116.6 (2.0)	117.2 (2.2)	117.5 (2.2)	119.2 (2.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1년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0.7로 전분기 대비 3.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함.
-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0으로 전월대비 1.2% 상승, 전년 동월대비 7.3% 상승함.
- 3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40.0으로 과일류가 하락하였으나 채소, 곡물,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대비 16.2%상승함.
- 3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4.4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상승한 데다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의 오름세도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1.8% 상승, 전년 동월대비 9.1%상승함.
 - 서비스는 운수, 금융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10.9 (-0.2)	115.1 (3.8)	113.1 (2.6)	114.9 (4.2)	115.5 (3.6)	117.0 (5.0)	120.7 (6.7)
농림수산물	110.1 (8.7)	120.0 (9.0)	115.5 (0.3)	116.8 (2.2)	121.9 (11.7)	125.8 (23.7)	139.8 (21.0)
광 산 품	126.4 (9.8)	140.8 (11.4)	141.1 (16.1)	140.5 (13.9)	141 (12.6)	140.6 (3.8)	141.2 (0.1)
공 산 품	111.2 (-1.6)	115.9 (4.3)	113.5 (2.8)	115.9 (5.1)	116.3 (3.9)	118.0 (5.3)	122.5 (7.9)
전력/수도/가스	123.7 (6.7)	128.7 (4.1)	127.5 (6.0)	127.7 (6.4)	129.6 (2.1)	130.1 (2.1)	131.7 (3.3)
서 비 스	108.0 (0.7)	109.8 (1.7)	109.2 (1.9)	109.6 (1.6)	109.9 (1.3)	110.4 (1.8)	111.3 (1.9)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1년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0.9로 전분기 대비 3.6%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함.
- 3월 수출물가지수는 113.5로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6% 상승, 전년 동월대비 9.1%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함.
-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52.6으로 전월대비 1.5% 상승, 전년 동월대비 22.2% 상승함.
-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3.3으로 국제유가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화학제품이 큰 폭으로 올라 전월대비 2.6% 상승, 전년 동월대비 9.0% 상승함.

【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9.2 (-0.2)	106.4 (-2.6)	104.0 (-9.8)	106.8 (-1.6)	107.9 (-0.6)	107.0 (2.4)	110.9 (6.6)
농림수산물	127.2 (4.6)	137.7 (8.3)	124.4 (-0.3)	140.1 (14.1)	144.4 (4.9)	141.8 (14.7)	149.8 (20.4)
공 산 품	109.1 (-0.2)	106.3 (-2.6)	103.9 (-9.9)	106.6 (-1.7)	107.7 (-0.6)	106.8 (2.3)	110.7 (6.5)
원 자 재	134.4 (6.9)	148.3 (10.3)	132.9 (-0.8)	151.7 (16.8)	157.4 (11.0)	151.3 (14.5)	159.8 (20.2)
자 본 재	121.0 (10.8)	106.9 (-11.7)	107.2 (-17.9)	107.1 (-12.3)	108.9 (-8.3)	104.5 (-7.2)	103.6 (-3.3)
소 비 재	98.5 (5.4)	87.1 (-11.5)	86.8 (-19.1)	87.6 (-12.0)	88.8 (-7.9)	85.1 (-6.1)	84.9 (-2.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1년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1.2로 전분기 대비 7.1%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6.9% 상승함.
- 3월 수입물가지수는 166.5로 국제유가가 전월에 이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석유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5% 상승, 전년 동월대비 19.6%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9%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0.5% 상승함.
 - 원자재의 경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등 광산품이 크게 오르고 천연고무, 원면, 양모 등 농림수산물도 올라 전월대비 5.8% 상승, 전년 동월대비 35.8% 상승함.
-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215.9로 전월대비 3.2% 상승, 전년 동월대비 40.4% 상승함.

【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37.7 (-4.1)	145.0 (5.3)	137.9 (3.2)	144.4 (8.1)	147.2 (7.0)	150.5 (9.7)	161.2 (16.9)
농림수산물	156.6 (-2.4)	171.0 (9.2)	157.6 (0.5)	164.5 (5.0)	174.6 (14.0)	187.3 (22.6)	208.7 (32.5)
공산품	129.3 (3.2)	129.2 (-0.1)	124.9 (-1.0)	128.6 (1.9)	130.7 (2.3)	132.4 (6.2)	136.8 (9.5)
원 자 재	159.2 (-16.9)	185.8 (16.7)	171.2 (12.5)	185.1 (21.6)	189.7 (16.5)	197.3 (16.2)	224.2 (30.9)
자 본 재	129.2 (19.3)	117.9 (-8.8)	116.5 (-9.3)	116.5 (-9.3)	120.9 (-3.8)	117.6 (-2.0)	116.6 (0.1)
소 비 재	130.5 (10.3)	126.3 (-3.2)	124.4 (-4.3)	126.3 (-2.9)	127.6 (-0.8)	127.0 (1.6)	128.0 (2.9)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0년 4/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분기 대비 3.0% 증가,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분기 대비 1.3% 증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함.
- 2011년 2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월 대비 0.7% 증가율을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5%로 전월 증가율(12.6%)보다 소폭 하락함.
 - 소득세 환급 등으로 현금통화 및 수시입출식예금의 증가폭 확대
- 2011년 2월중 광의통화(M2, 평잔)의 전월 대비 0.1% 감소율을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5.0%로 전월 증가율(6.5%)보다 하락하여 2010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정부 및 기업부문신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데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로 해외부문신용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M2 증가율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 6.6%에서 5.2%로 하락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M1 ¹	16.3	10.8	17.6	18.9	17.8	11.8	14.5	10.7	10.8	11.3
M2 ²	10.3	11.5	10.1	9.9	9.8	8.7	9.4	9.5	8.6	7.4
Lf ³	7.9	8.8	7.3	7.8	7.8	8.2	8.5	9.1	8.2	7.1
본원통화 ⁴	18.1	26.5	18.7	15.2	12.6	9.5	2.3	9.6	13.9	12.5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정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1년 3월 이후 국고채(3년)금리는 큰 폭의 등락을 보였음.
 - 월초 물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3.94%(3월 4일)까지 상승했다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등으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해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반등함.
- CD(91일)금리는 기준금리 인상(3월 10일)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3월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함.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0						201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3.88	3.73	3.48	3.24	3.40	3.25	3.71	3.94	3.74
콜 금 리 ¹	2.21	2.27	2.27	2.26	2.37	2.50	2.66	2.75	2.92
CD유통수익률(91일)	2.58	2.63	2.66	2.66	2.73	2.80	2.93	3.13	3.35
회 사 채 ²	4.81	4.68	4.41	4.13	4.19	4.17	4.52	4.72	4.54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3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증가(1,128원)대비 31원 하락한 1,097원을 기록함.
 - 일본 대지진 및 원전 누출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불안 지속 등으로 1,135원(3.15)까지 상승하였으나, G7의 공조개입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하락세를 시현하여 2008.9월 이후 처음으로 1,100원 선을 하회함.
- 3월말 원/엔 환율은 G7 공조개입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으로 전월말 증가인 1,379원에서 55원 하락한 1,324원으로 마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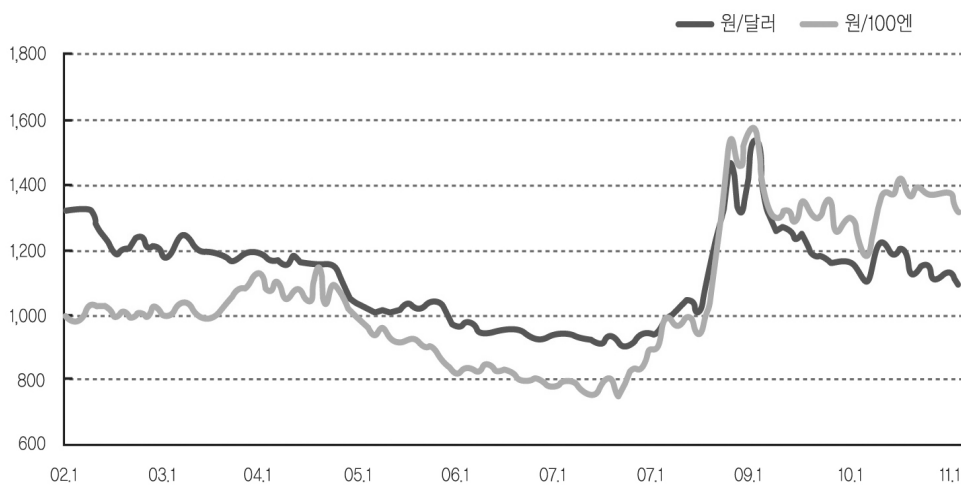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

단위: 원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1,107	1,203	1,219	1,185	1,198	1,137	1,125	1,160	1,120	1,122	1,128	1,097
원/100엔	1,176	1,316	1,375	1,372	1,421	1,366	1,393	1,380	1,376	1,366	1,379	1,324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Ⅱ. 농촌경제 동향 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1년 1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7로 전년 동기보다 12.9% 상승하였으며, 2010년 4분기보다는 6.0% 상승함.
- 식료품 중 특히 과일류가 전년 동기대비 66.7%로 크게 상승하였고, 채소류 20.9%, 과일채소가공품 18.2% 등 모든 품목이 상승함.
- 농업용품인 비료는 전년 동기대비 16.6%, 농약은 0.9% 하락한 반면에 사료는 6.6%, 농업용 기계는 5.4% 상승함.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12.8	118.4	126.1	133.7	12.9	6.0
식료품(이외)	111.3	112.7	116.1	119.6	6.1	3.0
곡물	88.5	87.6	88.3	95.6	9.2	8.3
채소	108.9	154.1	185.4	186.3	20.9	0.5
과실	81.4	95.0	144.0	158.3	66.7	9.9
축산물	114.5	116.4	110.3	137.2	17.9	24.4
육가공품	147.3	153.0	157.1	164.3	7.4	4.6
과실채소가공품	118.9	119.0	140.4	140.6	18.2	0.1
낙농품	124.4	124.3	126.6	127.0	2.1	0.3
사료	170.6	171.0	177.3	182.3	6.6	2.8
비료	195.3	189.2	173.5	157.8	-16.6	-9.1
농약	124.5	124.6	124.6	123.5	-0.9	-0.9
농업용기계	121.9	122.6	125.2	129.2	5.4	3.2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조우림(urimcho@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1.8% 상승하였고, 농축수산물은 전분기 대비 3.6% 상승함.
- 농산물의 경우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1.1% 상승하였고, 축산물은 전분기 대비 9.6% 상승함.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113.5	114.6	117.6	119.7	4.5%	1.8%
농축수산물	106.8	113.1	127.3	131.9	16.6%	3.6%
농산물	98.3	107.3	128.6	130	21.2%	1.1%
곡물	97.8	95.3	96.6	100.3	5.2%	3.8%
채소	105.1	136.2	171.7	166.1	21.9%	-3.2%
과실	87.5	90.3	118.4	120.8	33.8%	2.1%
기타농산물	111.1	116.0	137.6	146.0	25.8%	6.1%
축산물	119.8	118.4	118.1	129.4	9.3%	9.6%
수산물	121.6	128.1	136	143.3	11.9%	5.4%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1/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보리(과맥), 무, 마늘(난지), 느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05년=100)】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88.5	87.4	86.4	92.8	6.2	7.4
보리(과맥)	104.1	103.6	112.0	111.8	7.8	-0.2
배추	74.6	156.5	231.1	248.8	59.0	7.7
무	72.5	82.1	244.0	135.6	65.1	-44.4
고추(화건)	119.8	115.1	179.5	181.9	58.1	1.4
마늘(난지)	114.2	129.4	277.9	269.5	108.3	-3.0
양파	113.5	126.1	161.4	204.0	61.8	26.4
사과(후지)	56.4	75.2	104.6	119.5	59.0	14.3
배(신고)	72.9	95.8	110.3	137.4	43.5	24.6
느타리	104.6	105.8	105.1	102.8	-2.9	-2.2
참깨	100.0	112.9	130.1	142.8	26.4	9.8
국화	106.7	162.3	116.2	137.2	-15.5	18.1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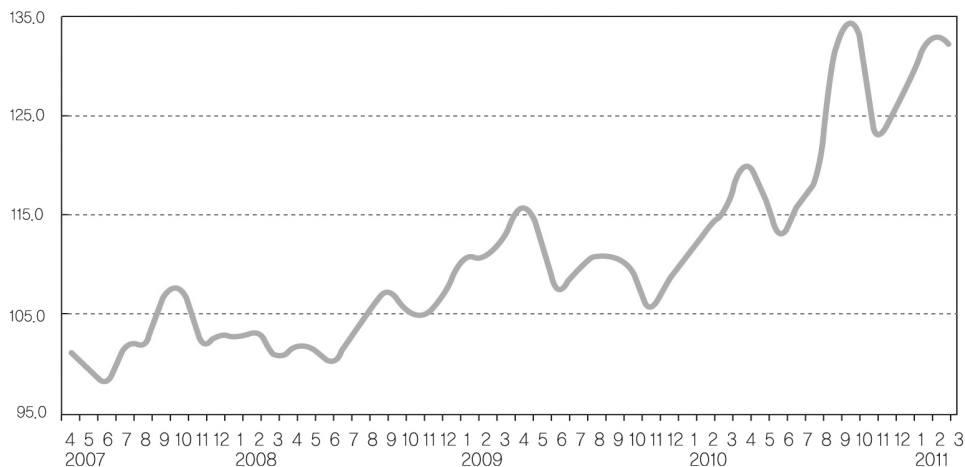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분기보다 7.4% 상승하였으며, 보리는 0.2% 하락함.
- 채소 가격은 무가 44.4% 하락하며 큰 하락폭을 보였고, 배추, 양파 등은 각각 전분기 대비 7.7%, 26.4% 상승함.
- 과일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파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 3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³⁾는 132.3으로 전년 동월대비 14.5% 상승하였으나, 2월보다 0.5% 하락함.

- 돼지고기, 배추, 양파, 마늘 등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사과, 무, 오이, 토마토 등은 상승하였음.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주요품목 생활물가지수(2005년=100)】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15	116.6	119.7	122.3	4.89	2.17
쇠고기(국산)	97.2	94.5	93	96	1.59	3.23
돼지고기	130.5	132.3	127.1	121.7	-8.01	-4.25
사과	118.6	111.4	114.4	140.3	25.94	22.64
무	72.7	76.8	91.5	101.2	31.77	10.60
배추	77.3	88.4	242.3	140	58.37	-42.22
파	75.2	123.3	228	219.2	77.78	-3.86
양파	131.6	141.9	285.2	264.3	86.26	-7.33
오이	110.6	114	141.9	167	46.49	17.69
토마토	116.6	182.3	132.9	159	-12.78	19.64
마늘	100	129.4	196.8	156.9	21.25	-20.27

자료: 통계청

-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1/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44.9로 전분기와 비슷하나 전년 동기에 대해서는 24.6% 상승함.
 - 신선채소는 무, 양배추, 토마토 등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3.3% 하락함.
 - 신선과실은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2.1% 상승함.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02.7	116.3	144.0	144.9	24.6	0.6
신선어개	123.6	130.6	138.5	146.8	12.4	6.0
신선채소	105.1	136.2	171.7	166.1	21.9	-3.3
무	77.3	88.4	242.3	140.0	58.4	-42.2
배추	75.2	123.3	228.0	219.2	77.7	-3.9
양배추	80.6	85.6	306.2	236.5	176.2	-22.8
오이	116.6	182.3	132.9	159.0	-12.8	19.6
토마토	100.0	129.4	196.8	156.9	21.2	-20.3
버섯	106.6	105.8	105.6	105.1	-0.7	-0.5
신선과실	87.5	90.3	118.4	120.8	33.8	2.1
사과	72.7	76.8	91.5	101.2	31.8	10.6
배	77.4	91.2	111.6	123.9	35.8	11.1
귤	76.2	74.6	96.1	96.3	29.0	0.2
기타신선	107.0	116.0	196.1	193.1	66.5	-1.5

자료: 통계청

1.6. 장바구니 물가지수

- 2011년 1/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⁴⁾는 쇠고기와 배추, 토마토, 마늘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 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낸 반면, 쇠고기는 전년 동기대비 8%, 전분기 대비 4.2% 하락하였음.
 - 과채류: 토마토는 기상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20% 하락하였음.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2009-2010		2010-2011		등락률(%)	
	4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97.2	94.5	93.0	96.0	1.6	3.2
쇠고기(국산)	130.5	132.3	127.1	121.7	-8.0	-4.2
돼지고기	118.6	111.4	114.4	140.3	26.0	22.7
닭고기	127.2	143.3	123.8	146.3	2.1	18.1
사과	72.7	76.8	91.5	101.2	31.8	10.7
배추	75.2	123.3	228.0	219.2	77.8	-3.8
양파	110.6	114.0	141.9	167.0	46.5	17.7
토마토	100.0	129.4	196.8	156.9	21.3	-20.3
마늘	106.9	114.3	208.4	205.2	79.5	-1.6
평균물가	104.3	115.5	147.2	150.4	30.3	2.2

자료: 통계청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1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분기보다 21.8%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보다는 2.3% 감소함.
- 여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 대비 30.0% 감소한 47만 2천명이었고, 남성은 15.4% 감소한 73만 5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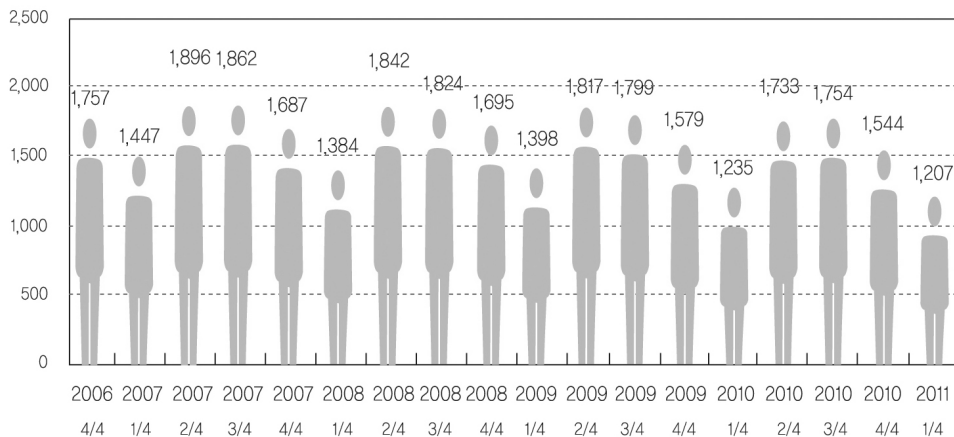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09-2010		2010-2011		증감률	
		4/4분기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3,631	23,037	23,989	23,459	1.8	-2.2
	농림어업	1,579	1,235	1,544	1,207	-2.3	-21.8
	남성	879	756	869	735	-2.8	-15.4
	여성	700	479	674	472	-1.5	-30.0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1년 1/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전기 대비 61.5%나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기 대비 44.4% 감소하였음.

- 전년 동기대비로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5.6% 증가하여 단시간 근로자수가 늘어남.
- 주당 평균시간은 30.8시간으로 전기 대비 19.6% 감소했고, 일시휴직자도 2만 1천명으로 5% 증가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09-2010		2010-2011		증감률	
	4/4분기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기 대비
전체	1,579	1,235	1,544	1,207	-2.3	-21.8
1~17시간	171	266	174	281	5.6	61.5
18~35시간	364	383	354	350	-8.6	-1.1
36시간 이상	1,025	561	996	554	-1.2	-44.4
일시 휴직	19	25	20	21	-16.0	5.0
주당 평균시간	39	31	38.3	30.8	0.3	-19.6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동향

- 2011년 1/4분기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총 15억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2%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 채소종자, 유자차, 멜론, 새송이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닭고기, 오리고기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대비 큰폭으로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오징어, 다시마, 바지락 등은 감소한 반면, 고등어, 미역, 김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3.4%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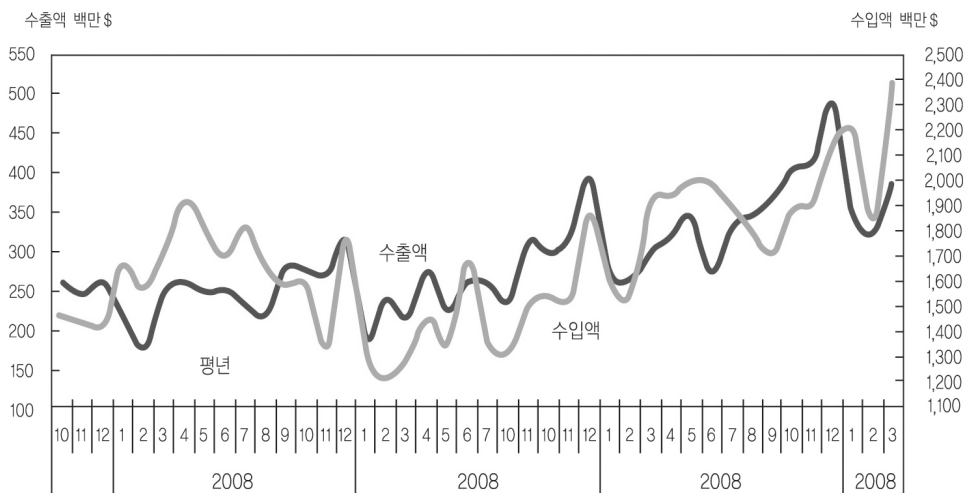
단위: 천톤, 백만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68	815	538	1051	15.1	29.0
농 산 물	405	741	484	958	19.4	29.3
축 산 물	14	31	15	42	9.9	35.9
임 산 물	48	43	39	51	-20.1	17.8
수 산 물	156	385	162	475	3.5	23.4
전 체	624	1,200	700	1527	12.2	27.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월보다 21.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전월보다 30.2%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



3.2. 수입동향

- 2011년 1~3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총 74억 7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함. 농산물은 서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1.1% 증가함. 축산물은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047	5,066	10,215	6,440	1.7	27.1
농 산 물	6,768	3,181	7,206	4,169	6.5	31.1
축 산 물	249	691	319	1,028	28.3	48.7
임 산 물	3,030	1,194	2,689	1,244	-11.3	4.1
수 산 물	1,202	854	1,211	1,037	0.8	21.5
전 체	11,249	5,920	11,426	7,477	1.6	26.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축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3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2억 2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9%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2.7	124.1	84.1	150.2	1.7	21.1
농 산 물	47.7	94.5	68.2	128.2	42.8	35.7
축 산 물	0.8	4.6	1.9	10.5	142	127.8
임 산 물	34.2	25.0	14.1	11.5	-58.7	-53.9
수 산 물	22.5	41.0	32.5	72.5	44.5	76.7
합 계	105.2	165.1	116.7	222.7	10.9	34.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액 측면에서 화훼류와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낙농품 146.8%, 채소류 40.7% 등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405	484	485	597	19.7	23.4
과실류	6,576	7,289	6,830	8,785	3.9	20.5
채소류	194	989	158	1,391	-18.5	40.7
화훼류	1,517	7,942	752	4,225	-50.4	-46.8
버섯류	744	1,053	277	491	-62.7	-53.4
낙농품	442	3,174	1,244	7,833	181.5	146.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3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함. 특히,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6	745	1,353	843	1.3	13.1
농 산 물	762	476	856	558	12.3	17.3
축 산 물	4	11	5	15	36.9	39.6
임 산 물	570	258	492	269	-13.7	4.3
수 산 물	300	288	315	333	5.0	15.7
합 계	1,636	1,033	1,668	1,176	2.0	13.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4분기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은 2억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2% 증가함.
 - 과실류는 유자, 기타감귤류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71.2% 증가함.
 - 채소류 중 양배추, 오이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토마토, 멜론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화훼류는 선인장, 백합 등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0.1%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1,863	196,048	165,529	259,125	25.5	32.2
곡류	2,217	1,680	2,144	1,929	-3.3	14.8
과실류	1,765	3,649	2,186	6,246	23.9	71.2
채소류	11,735	38,916	9,718	39,976	-17.2	2.7
화훼류	1,200	10,562	850	9,498	-29.2	-10.1
버섯류	138	362	201	638	46.0	76.2
낙농품	822	2,791	855	3,472	4.1	24.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3월중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함.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백만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9,157	108,274	47,300	111,959	-20.0	3.4
농 산 물	32,378	78,290	27,728	92,513	-14.4	18.2
축 산 물	434	3,104	786	5,804	81.3	87.0
임 산 물	26,346	26,879	18,786	13,642	-28.7	-49.3
수 산 물	27,455	59,296	27,553	78,237	0.4	31.9
합 계	86,612	167,569	74,854	190,196	-13.6	13.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3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8천 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함.
 - 과실류는 키위, 포도, 배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함.
 - 채소류 중 상치, 딸기, 채소종자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그 외 호박, 마늘 등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24.5% 감소함.
 - 화훼류는 난초, 기타절화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03.2%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5,221	82,006	40,227	88,783	14.2	8.3
곡류	1,095	1,605	1,815	2,621	65.7	63.4
과실류	2,303	2,944	2,188	2,882	-5.0	-2.1
채소류	3,211	5,494	1,580	4,146	-50.8	-24.5
화훼류	18	197	37	399	100.6	103.2
버섯류	753	1,358	440	926	-41.6	-31.8
낙농품	1,090	1,000	1,042	1,083	-4.4	8.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3월중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2.8%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29.7% 증가함.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226	1,415	3,137	1,835	-2.8	29.7
농 산 물	2,884	1,075	2,787	1,230	-3.4	20.9
축 산 물	74	194	128	372	72.2	91.2
임 산 물	268	145	222	164	-16.9	12.9
수 산 물	16	25	11	28	4.9	29.7
합 계	3,237	1,440	3,148	1,863	-2.7	29.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⁵⁾

4.1. 국제곡물 가격 동향

- 옥수수 선물투기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기말재고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4월 평균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96달러로 전월대비 10.1%, 전년 평균 가격대비 76.1% 상승함.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 6월 가격(276달러/톤)보다 8% 높은 수준임.
- 밀 선물가격은 아랍사태와 일본 대지진으로 2011년 3월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 들어 밀 선물투기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됨. 4월 평균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6달러로 전월대비 6.3%, 전년 평균 가격 대비 34.1% 상승함.
- 2011년 4월 평균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502달러로 전월 수준을 유지함. 이는 2010/11년 세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두 선물투기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

	'08	'09	'10	201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1월	2월	3월	4월		
밀	294	195	213	295	306	269	286	34.1	6.3
옥수수	208	147	168	250	272	269	296	76.1	10.1
대두	453	378	385	511	512	499	502	30.3	0.6

주: 회계년도 기준,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5)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위기 지수를 구성하고, 선행변수들(국제곡물 선물가격, 곡물 재고율, 국제원유 선물가격, 곡물 소매수포지선)을 설정 한 후, 신호접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출된 N/S비율(Noise-Signal Ratio)을 가중치로 사용, 선행변수들을 취합하여 만든 지수임.

4.2. 국제곡물 수급 전망

- 폭염 및 가뭄으로 2010/11년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3,00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10/11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7.6%로 전년대비 2.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4.9%, 3.5%, 2.0% 감소하여 2010/11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사료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2.8% 증가한 8억 3,832만 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11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4.6%까지 하락하여 2007/08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2007/08	2008/09	2009/10 (추정)	2010/11 (전망)	전년대비 (%)
밀	생산량	611.02	682.19	683.81	647.18	-5.4
	소비량	617.30	641.48	652.55	662.26	1.5
	교역량	117.21	143.66	135.80	124.16	-8.6
	기말재고량	122.66	166.66	197.91	182.83	-7.6
	기말재고율(%)	19.9	26.0	30.3	27.6	-
옥 수 수	생산량	792.44	798.82	812.43	814.94	0.3
	소비량	771.95	782.03	815.69	838.32	2.8
	교역량	98.56	84.47	96.98	90.80	-6.4
	기말재고량	129.86	149.07	145.80	122.43	-16.0
	기말재고율(%)	16.8	19.1	17.9	14.6	-
대 두	생산량	221.21	211.95	260.22	260.97	0.3
	소비량	229.74	221.34	237.96	255.77	7.5
	교역량	79.59	76.84	92.66	98.51	6.3
	기말재고량	52.96	42.57	58.88	60.94	3.5
	기말재고율(%)	23.1	19.2	24.7	2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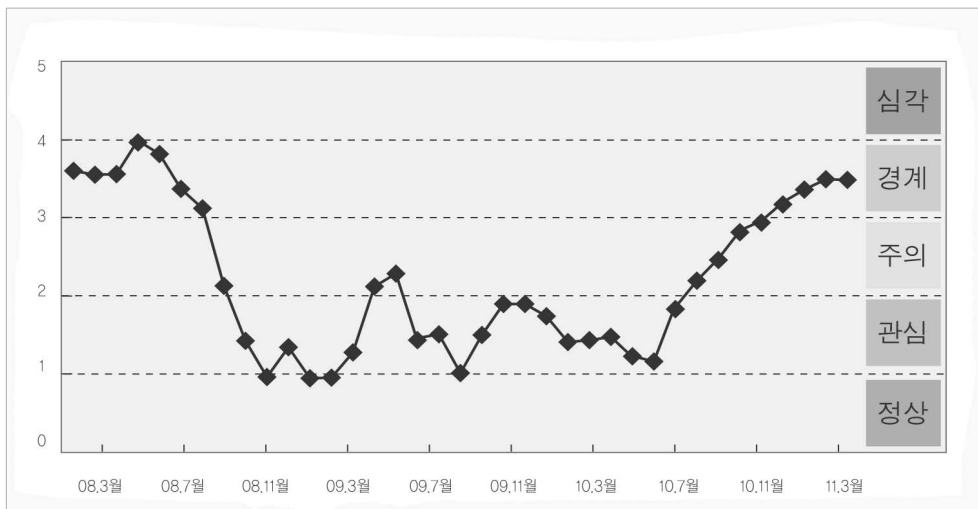
자료: USDA, WASDE-493, April 8, 2011.

-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소비와 식용 소비 증가로 중국의 대두 소비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10/11년 세계 대두 소비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2억 5,577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10/11년 세계 대두 기말재고율도 전년대비 0.9%p 하락한 23.8%로 전망됨.

4.3.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 2011년 3월 말,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이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3.47)는 전월과 동일한 경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0.06p 하락함.
- 조기경보지수: (10.9)2.47→(10.10)2.81→(10.11)2.96→(10.12)3.19→(11.1)3.39→(11.2)3.53→(11.3)3.47

【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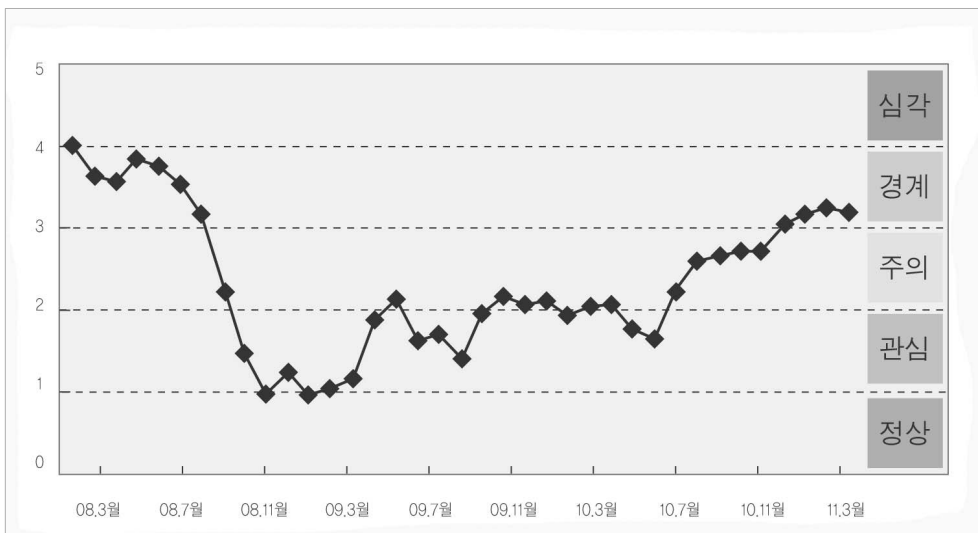


주: 해당월의 지수는 향후 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위험수준을 나타냄.

- 국제원유 선물가격이 상승하고, 대두 기말재고율이 하락하여 위험신호를 보였으나, 곡물 선물투기 감소로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밀,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상승함에 따라 3월말 기준 국제곡물 EWS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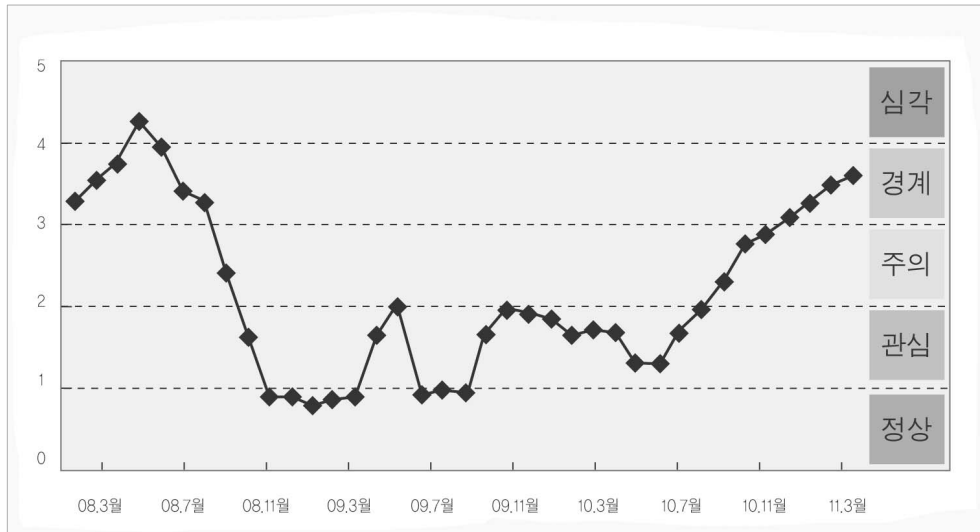
- 2011년 3월말 기준 밀 조기경보지수는 3.17로 전월(3.21)보다 하락 하였으나 경계 수준 유지함.
-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밀 선물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말재고율 상승과 선물 투기가 감소함에 따라 3월 밀 EWS지수는 전월 대비 0.04p 하락함.

【 밀 조기경보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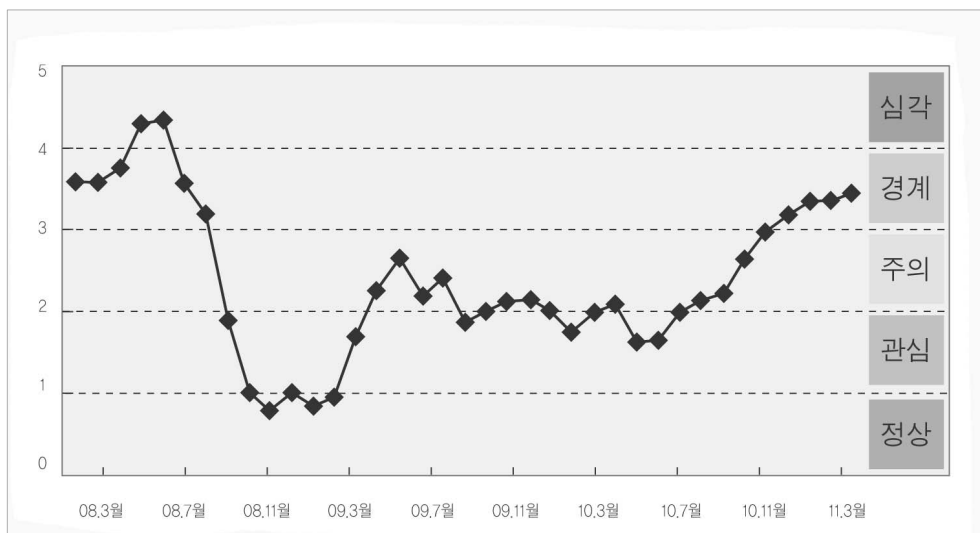
- 옥수수 EWS지수는 2011년 3월 3.63을 기록하면서 경계 수준을 유지함.
- 옥수수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기말재고율이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가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옥수수 EWS지수는 전월대비 0.13p 상승함.

【 옥수수 조기경보지수 】



- 2011년 3월말 기준 대두 조기경보지수는 3.46으로 경계 수준을 유지함.
 - 대두 선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두 EWS지수는 전월대비 0.11p 상승함.

【 대두 조기경보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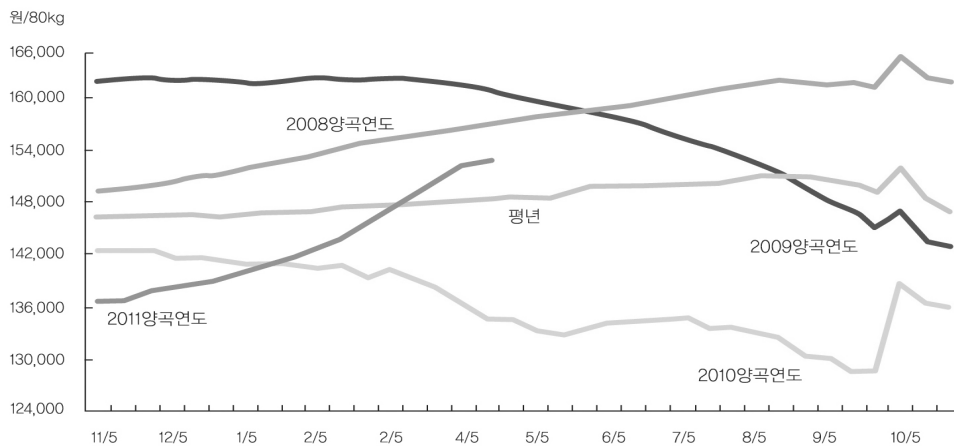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⁶⁾

1.1. 쌀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작년 수확기 이후의 가격 동향

- 2010년 11월 5일 반등 이후 산지 쌀값은 상승세 지속
- 쌀값 상승의 배경으로 2010년산 쌀 생산량 및 도정수율 감소, RPC 벼재고량 감소 등으로 원료곡가격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임.
 - * 쌀 생산량: ('09년산) 4,916천톤→('10년산) 4,295천톤(12.6% 감소)
 - * '10년산 도정수율 감소: (평년)72%→('10년산 추정)69%
- 2월 들어 쌀 가격은 전회대비 평균 1.1%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3월 15일 이후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석호 부연구위원(shohan@krei.re.kr), 박미성 연구원(mspark@krei.re.kr), 김재환 연구원(jhkim74@krei.re.kr), 김대석 연구원(sorihunt@krei.re.kr)이 작성하였음.

평년가격을 상회

- 산물벼 등 61천 톤 인도, '10년산 정부쌀 5만 톤씩 2차 공매, '09년산 실수요 업체 대상 판매 등 정부쌀 방출 확대 영향으로 4월 15일 산지 쌀값은 15만 2,768원/80kg으로 전회대비 상승세가 0.3%로 완화됨.
- 4월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13만 7,416원/80kg)대비 11.2% 상승, 평년(14만 8,304원/80kg)대비 3.0% 상승
- 2010년산 쌀 재고 및 거래 동향
 - '11.3월말 기준 RPC의 벼 보유물량(공매물량 제외)은 64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 톤 감소
 - * 정부쌀 1차공매(3.31) 4만 5,750톤/정곡, 낙찰가 51,217원/40kg
 - * 정부쌀 2차공매(4.15) 4만 5,415톤/정곡, 낙찰가 50,880원/40kg
 - '11.3월말 기준 농협 총매입량은 1,019천 톤으로 전년대비 301천 톤 감소
 - * 하지만 '11.1~3월 농협 매입량은 163천 톤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
 - '11.3월말 기준 농협 총판매량은 504천 톤으로 전년대비 176천 톤 증가
 - * 생산량 감소로 비RPC농협의 조곡 판매물량이 크게 증가
 - * 농협에서 민간으로의 판매가 큰 폭(140.7%) 증가
- 2011년 상반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 정부쌀 방출 확대로 산지 유통업체 원료곡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4월 25일 이후 산지 쌀값은 상승세가 둔화되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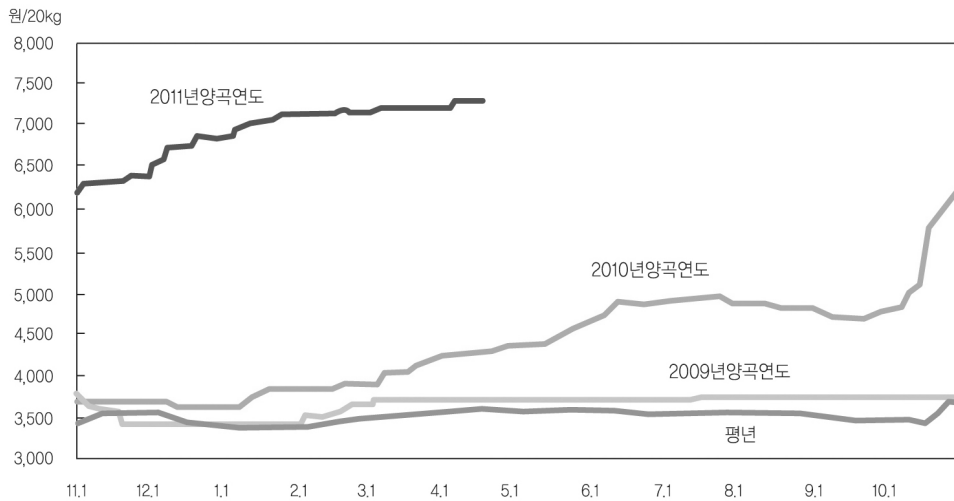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09년산 정부쌀 방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수요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쌀시장의 혼선방지 필요
- 예년에 비해 빠른 추석과 당겨먹는 물량을 감안하여 '11년산 조생종 벼 재배면적의 적정 수준 유도가 필요함.

1.2. 콩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상반기 동향

- 4월(18일까지) 국산콩 도매가격은 7,244원/kg으로 전년대비 69.1%, 평년대비 101.4% 높은 수준임.
- 2011양곡연도(2010년 11월~2011년 3월) 3월까지 식용콩 수입량은 12만 7,951톤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함.

● 2011년 하반기 전망

- 2011년산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평년기준 단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은 13만 2,834~14만 884톤으로 전년대비 17~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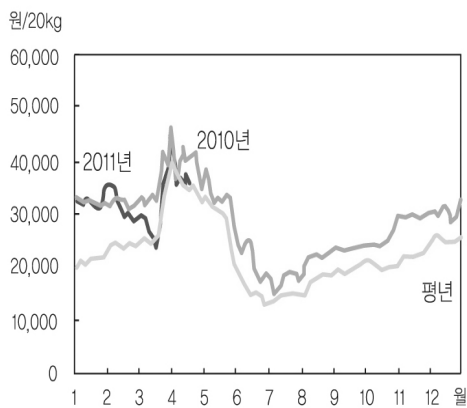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재배의향면적 증가와 함께 단수도 평년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현재 평년대비 2배 수준인 가격이 급락할 전망. 따라서 가격급락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 필요
 - 2010년산 정부비축 콩 구매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2011년산 정부비축 구매량 확대 검토
 - 국산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국산콩 안전성 홍보 등을 위한 자조금 사업 검토
- TRQ물량을 비롯한 수입산 식용콩에 대한 시장 출하를 차후 작황 및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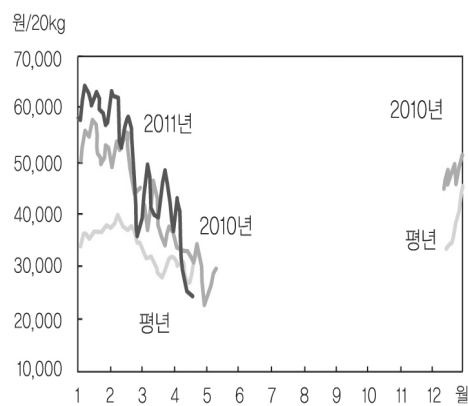
1.3. 감자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대지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상반기 동향
 -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기상호조로 단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2011년 봄(시설)감자(수미) 생산량은 증가하였음. 4월 18일 기준 평균도매가격은 3만

7,921원/20kg으로 전년 동월동기보다 6.9% 낮은 수준임.

- 제주지역 면적감소와 기상악화로 인해 2010년 12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대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됨. 5월 중 대지 출하는 종료될 전망이다.
- 2011년 하반기 전망
 - 봄(노지)감자의 재배면적과 고랭지감자의 재배의향면적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하반기 채소가격이 폭락할 경우 채소작물로 전환했던 농가가 다시 감자재배로 돌아서게 되면 재배의향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7월 이후 기상이변이 없어 전년보다 단수가 증가한다면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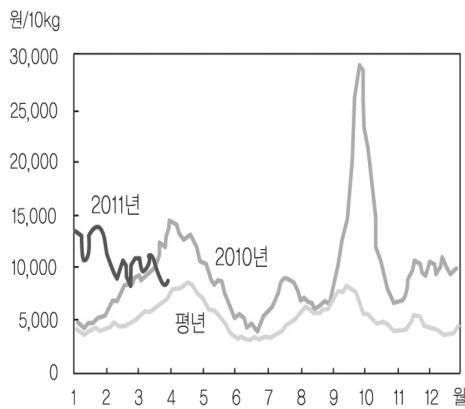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봄(노지)감자의 출하 조절을 유도해 수미가격 폭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자홍보를 통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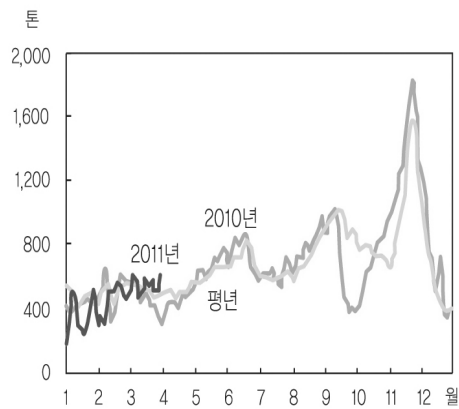
2. 채소기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5~2009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1/4분기에 출하되는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0% 증가하였으나 동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14%, 평년보다 29% 감소한 26만 7천 톤 수준임.
-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로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8%, 평년 동기보다 114% 높은 수준임.

* (2011) 10,700원/10kg, (2010) 7,780원/10kg, (평년) 5,000원/10kg

● 2011년 상반기 전망

- 4~5월 출하되는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61%, 평년보다 70% 증가한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종선 부연구위원(sun589@krei.re.kr), 서대석 부연구위원(dssuh@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윤형현(aruki00@krei.re.kr), 류상모(lesamang@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최선웅(csung@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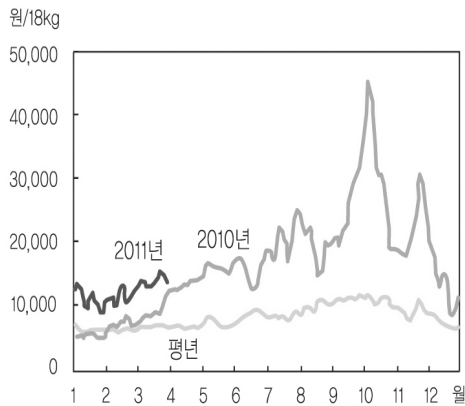
25만 3천톤으로 추정됨.

- *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음에다 금년 정식기 가격도 높아 작년보다 30%, 평년보다 54% 증가한 4,800ha로 추정됨.
- * 시설봄배추 단수는 기상여건이 좋아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23%, 평년보다 10% 증가한 5,242kg/10a로 추정됨.
- 5~6월 출하되는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2% 증가하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37만 9천톤으로 추정됨.
-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0% 증가하나 평년과 비슷한 7,309ha, 단수는 평년 작황인 것으로 조사되어 5,184kg/10a로 추정됨.
- * 5월 중·하순의 노지봄배추 생산량 증가폭이 클 것으로 조사됨.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특히, 6~7월 출하되는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4~6월의 봄배추와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생산량 증가로 배추 도매가격은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55%, 평년보다 3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 특히, 5월 중순 이후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70%, 평년보다 50%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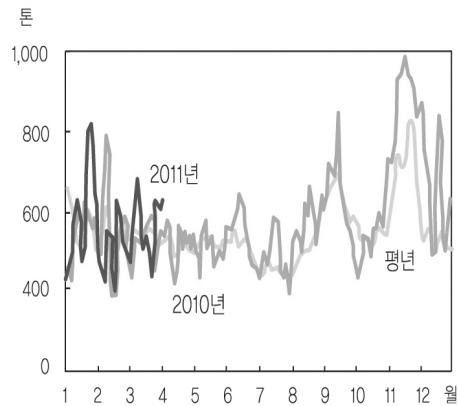
2.2. 무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기상이변으로 월동무 1/4분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
 - * 저온 현상으로 월동무 작황이 나빠 상품 물량이 크게 감소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제주 월동무의 저온 피해로 작년보다 45%, 평년보다 88% 상승
 - * (금년) 13,060원/18kg, (작년) 8,989원/18kg, (평년) 6,958원/18kg

● 2011년 상반기 전망

- 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24% 증가 전망
 - *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노지봄무는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 시설봄무 단수는 작년과 비슷하나 노지봄무는 12% 증가하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 * 시설봄무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나 노지봄무는 작년보다 27%, 평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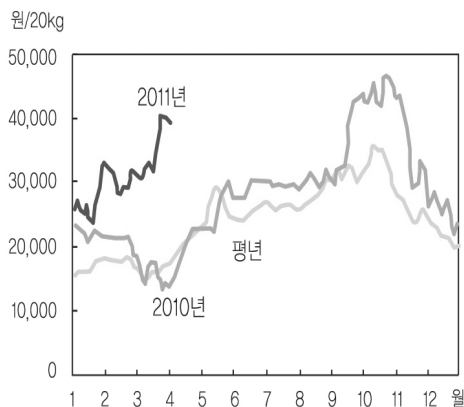
-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7%, 평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4분기 무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 4월 무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6% 낮으나 평년 대비 83% 높을 전망
 - * 5~6월 무 도매가격은 봄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 대비 40% 낮으나 평년 대비 4% 높을 전망
 - * 특히, 5월 하순 노지봄무 출하 이후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나. 대책 방향

- 5월 하순 노지 터널 봄무 출하 이후 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봄무 분산 출하 필요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1/4분기 가격은 겨울당근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상승함.

* 겨울당근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3%, 38% 감소한 4만 7,638여 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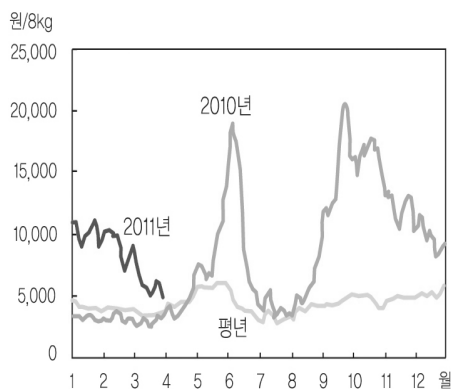
* 1/4분기 상품 도매가격은 3만 760원/20kg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59%, 83% 상승함.

● 2011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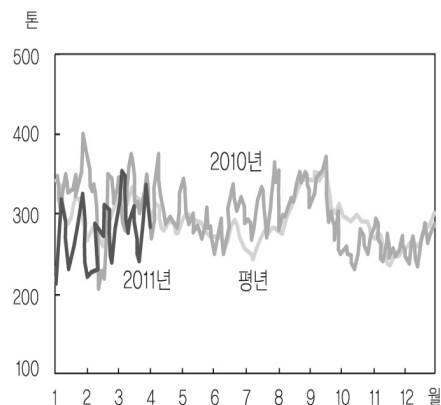
- 시설봄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하였으나 노지봄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당근 도매가격은 봄당근 출하가 완료되는 7월 말까지 작년 대비 강세가 지속되나 1/4분기와 같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최근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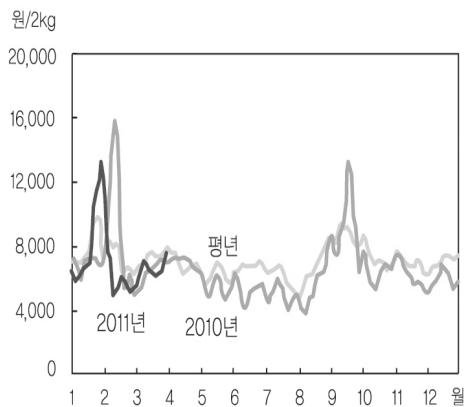
- 1/4분기 가격은 겨울양배추 생산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저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32%, 30% 감소한 10만 2,000여 톤 수준임.
 - * 1/4분기 상품 도매가격은 8,350원/8kg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68%, 119% 높은 수준임.

● 2011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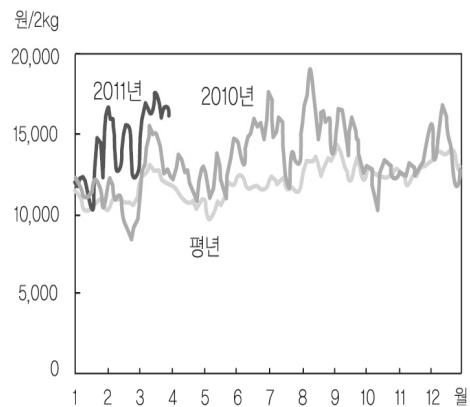
- 시설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3%, 노지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2/4분기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

2.5. 버섯

【 느타리버섯 도매가격 동향 】



【 양송이버섯 도매가격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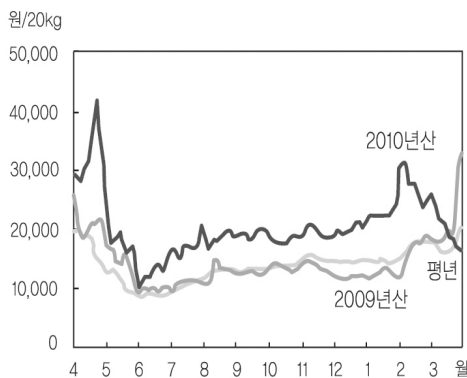
- 느타리 1/4분기 가격은 병재배 시설 증축 농가와 신규 농가가 늘어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하락함.
 - *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7,11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 10% 낮은 수준임.
- 양송이 1/4분기 가격은 겨울철 한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볏짚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입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과 평년보다 상승함.
 - *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14,36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26% 상승함.

● 2011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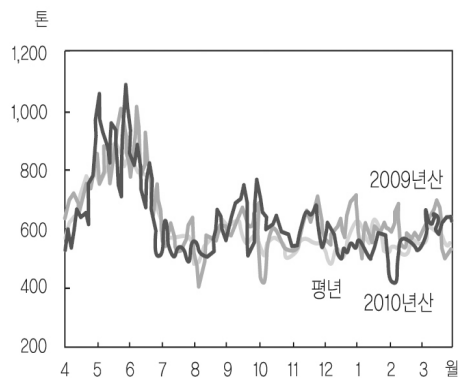
- 느타리버섯 균상·봉지재배는 감소하나 병재배 입병증가로 작년보다 출하가 늘어날 전망이다.
- 양송이버섯은 배지 부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가 줄어 출하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6.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5년 4월~2010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양파 1/4분기 상품 20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1%, 42% 높은 23,520원임.

* (금년) 23,520원/20kg → (작년) 16,640원 → (평년) 16,610원

- 이는 2010년산 양파 전체 저장량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입고 가격으로 출고가 조절되었기 때문임.

- 2011년 상반기 전망

- 4월부터 출하되는 금년산 조생종 양파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6% 증가한 16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3월 말 기준 2010년산 저장 양파 재고량도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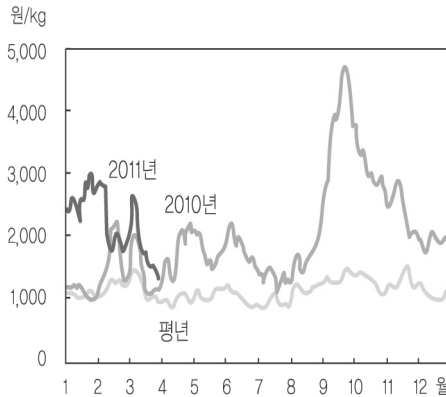
* 따라서 4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5월 이후 출하될 금년산 중만생종 추정 생산량은 평년과 작년 단수 적용시 128만 5천~133만 5천 톤 수준으로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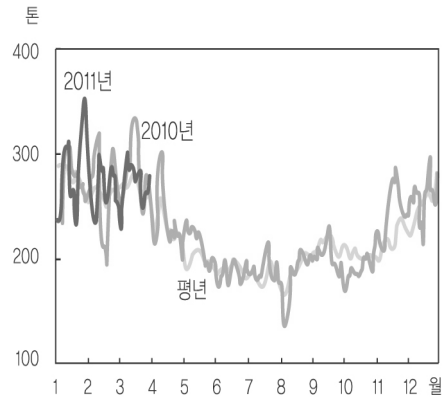
* 따라서, 중만생종 수확기(5~8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7.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6년 1월~2010년 12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2,21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6%, 평년 동기보다 108% 높은 수준이었음.

* (금년) 2,205원/kg → (작년) 1,417원 → (평년)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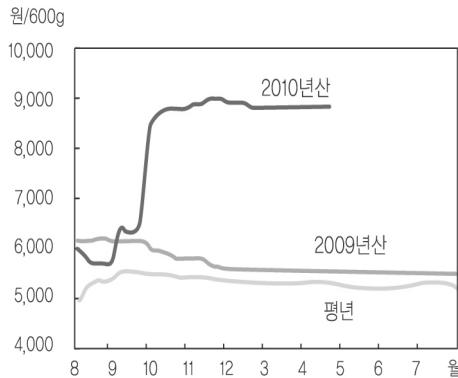
- 이는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겨울철 한파와 3월 저온으로 출하량도 작년과 평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임.

● 2011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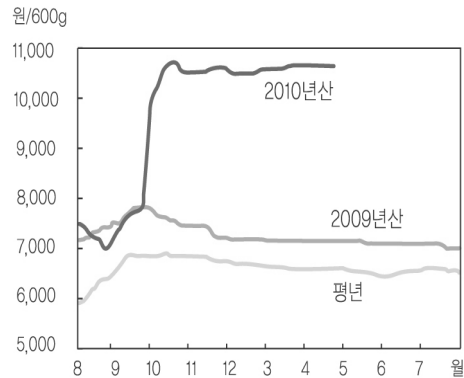
- 3월 대파 수입량이 6천 톤에 이르면서 3월에 소진되지 못한 수입대파 1,800여 톤이 4월로 이월되었고, 4월(20일 기준)에도 1,000톤 가량 수입되면서 4월 가격 kg당 800원선까지 하락
- 5월 이후 출하될 월동대파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3~4월 기상 호조로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 전망.
-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대파는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작년 대비 증가할 전망. 특히 작년과 같은 기상 재해가 없을 경우 가격 하락은 뚜렷할 전망.

2.8.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양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반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5년 8월~2010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급 동향

- 건고추 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58% 높은 8,830원, 양건은 48% 높은 1만 580원 수준이었음.

* 화건: (금년) 8,832원/600g → (작년) 5,586 → (평년) 5,326

* 양건: (금년) 10,584원/600g → (작년) 7,151 → (평년) 6,640

- 이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2010년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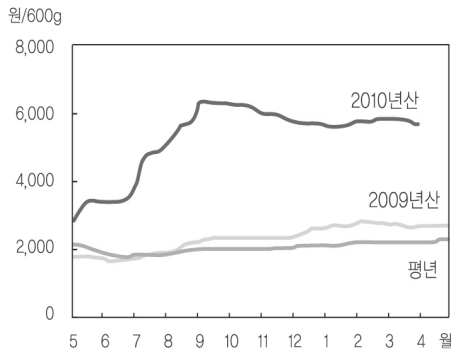
● 2011년 상반기 전망

- 상반기 가격은 재고량 부족으로 작년보다 높을 듯
 - * 수확기인 8월 이전까지 가격은 재고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
 - * 화건: (4~8월) 8,000원/600g 내외 전망
- 2011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010년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2.9. 마늘

【 마늘 도매가격 동향 】

【 3월 말 기준 마늘 재고량(부패율 15.4% 적용) 】



연산	생산량	수입량	재고량
2010	271,560	78,911	14,350
2009	357,278	33,662	20,159
증감률	-24.0	134.4	-28.8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5년 5월~2010년 4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급 동향

- 마늘 1/4분기 상품 k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08% 높은 5,765원이었지만 전기 대비 약보합세를 보임.

* 난지형 마늘: (금년) 5,765원/kg → (작년) 2,771 → (평년) 2,225

- 이는 2010년산 저장마늘 재고량이 적은 상황이지만 올해 초부터 정부수입물량을 조기 도입하여 방출하였기 때문임.

● 2011년 상반기 전망

- 상반기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지만 수확기(5~6월)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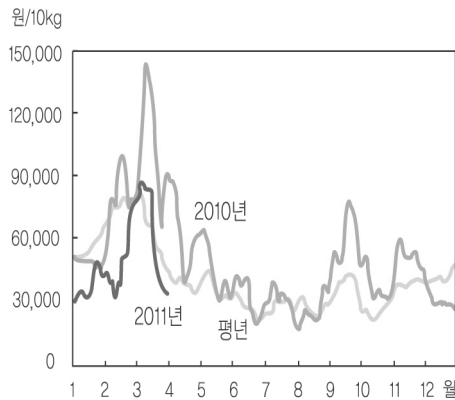
* 2011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평년단수 적용 시 29만 톤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마늘 수확기 도매가격은 5~6월에는 저장마늘 영향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겠지만, 전년대비 2011년산 생산량 증가 및 예상수매가격 하락으로 5~8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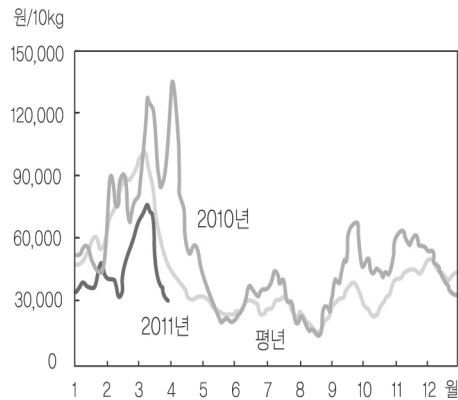
2.10. 풋고추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풋고추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일반풋고추가 49,689원, 청양계풋고추가 47,23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임.

* 일반풋고추: 작년대비 35% 하락, 평년대비 24% 하락

청양계풋고추: 작년대비 39% 하락, 평년대비 36% 하락

* 주산지인 경남 밀양과 진주지역의 작황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세를 보였음.

● 2011년 상반기 전망

- 상반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 및 소비부진으로 약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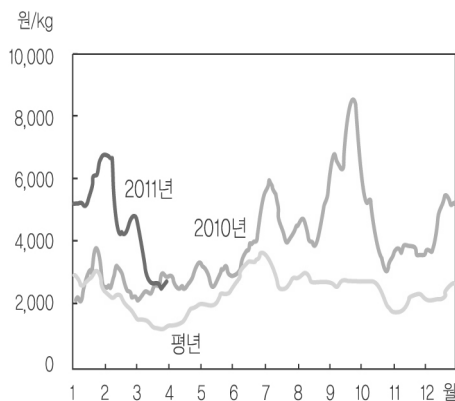
* 출하면적 증가와 작황 회복으로 인하여 출하량이 작년과 평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지속적인 가격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나.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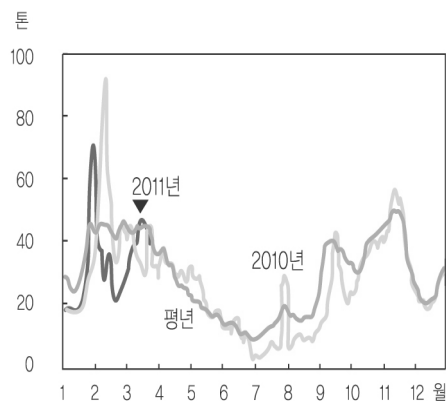
-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적절한 수급조절 필요
 -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풋고추 가격이 작년과 평년대비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가소득 및 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부진으로 인하여 산지 출하량 증가분이 소진되기 어려우므로 산지조절출하 등이 필요함.

2.11. 쪽파

【 쪽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쪽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급 동향
 - 쪽파 1/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70% 높은 4,587원 수준이었음.
 - * 쪽파 : (금년) 4,587원/kg → (작년) 2,693 → (평년) 2,193
 - 이는 1~2월 한파와 파종 면적 감소에 따라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적었기

때문임. 하지만 기상 호전으로 인한 단수 증가로 가격은 2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전망

- 상반기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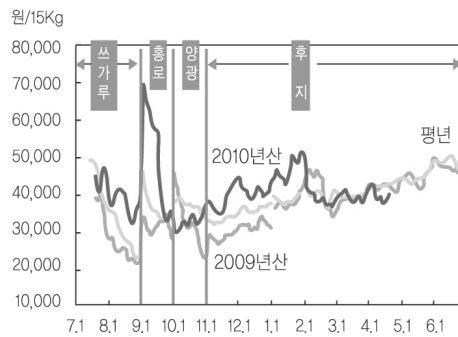
- * 작년 파종기 종구 부족에 따른 파종 면적 감소로 상반기 가격도 작년 동기 보다는 높겠지만, 최근 기상 호전에 따른 단수 증가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 * 하지만 여름쪽파가 주 출하되는 6~8월 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상승세로 반등될 전망이다.

3. 과일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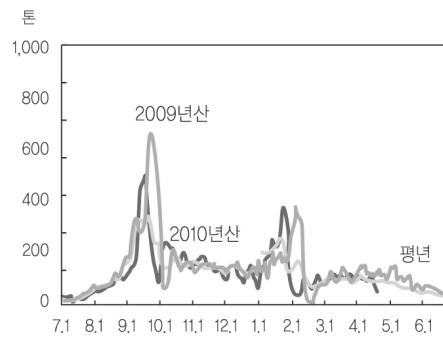
3.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사과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1월은 4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26% 높았고 2월은 3만 8천원으로 9% 낮았음. 3월은 3만 9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올해는 설 명절이 2월 3일로 작년보다 10일 가량 빨라 1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28% 많고 2월은 51% 적었음.

● 2011년 2/4분기 가격 전망

- 4월 이후는 저장사과 출하량이 작년보다 다소 많고, 가격은 4~6월 평년 도매가격 4만 6천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재배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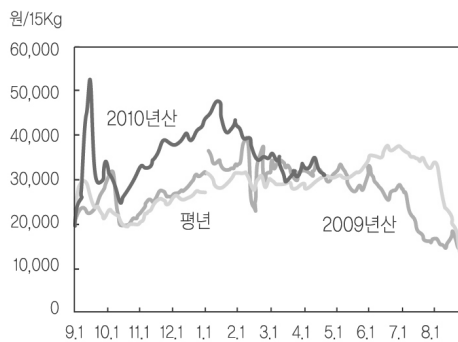
-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늘어난 3만 1,359ha으로 전망됨. 신규과원조성(경남, 경북지역), 지원사업(강원, 경북지역) 등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여민수(ch62minsu@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만생종 후지 계열의 신품종(미야마·미시마·기쿠8·로얄후지 등)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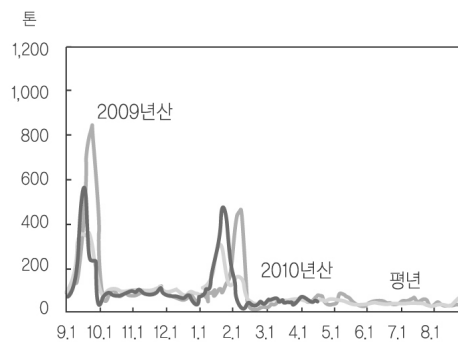
3.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1월은 4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31%, 2월은 3만 5천원으로 13% 높았음. 3월은 3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2% 낮았음.
- 올해는 설(2월 3일)이 작년보다 10일 가량 빨라 출하 물량이 단기에 집중되었고, 설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과실계약 물량 추가 출하로 인해 1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138% 많고 2월은 83% 적었음.

● 2011년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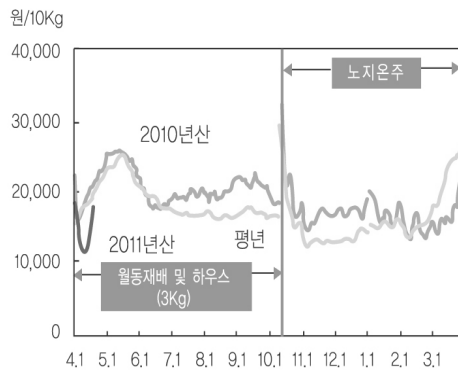
- 4월 이후 저장배 출하량이 작년보다 40~50% 가량 적어, 가격은 4~6월 평년 도매가격 3만 2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재배면적 전망

- 올해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한 1만 6,083ha로 전망됨. 지역별 재배면적은 충청지역이 작년보다 2% 감소하고, 경기·호남·영남지역은 각각 1% 감소할 전망이다.
- 신고 재배과원 일부에서는 사과(충남 예산), 복숭아(전남 나주·영암, 경북 김천), 블루베리(울산광역시, 경기 안성)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고 있음.

3.3. 감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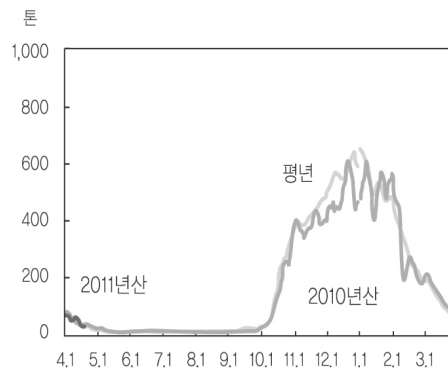
【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귤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감귤노지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에 1월은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31% 높았고, 2월은 1만 5천원으로 3% 높았음. 3월은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23% 낮았음. 올해는 설 명절 출하를 기대한 저장량이 많아 뚜렷한 해거리해 임에도 불구하고 1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3% 많았고, 2월은 38% 적었음.

● 2011년 2/4분기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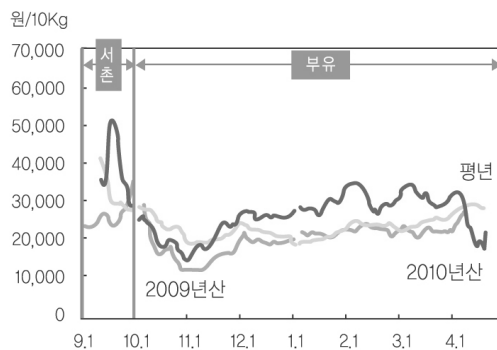
- 4월 이후 하우스 온주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3,4번과 생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보다 착과시기 일조량이 좋아 가격은 4~6월 평년 도매가격 2만원 보다 다소 높을 전망이다.

● 재배면적 전망

- 유류비가 높아 가온하우스온주 면적은 감소하고 월동온주, 무가온하우스온주, 만감류의 재배면적은 늘어날 전망이다.
- FT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노지재배가 시설재배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류비 부담이 큰 극조기 및 조기 가온하우스 재배가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로 전환될 전망이다.

3.4. 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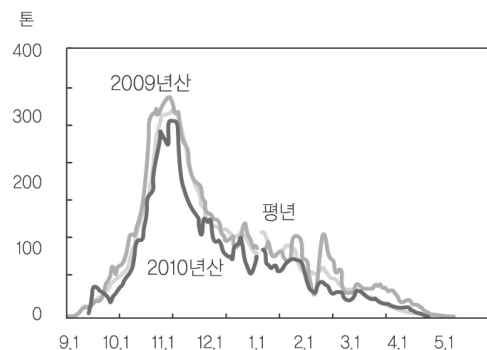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단감부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1월은 3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36% 높았고, 2월은 4만 1천원으로 31% 높았으며, 3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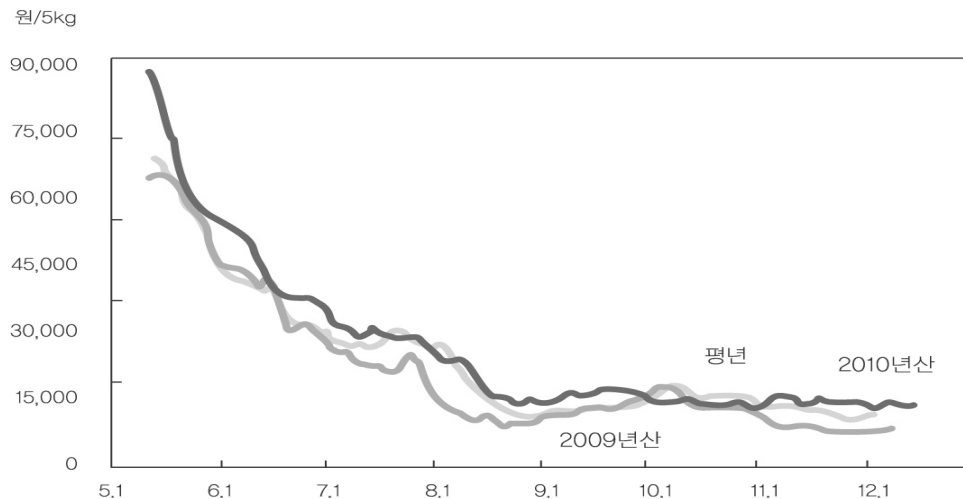
4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50% 높았음. 이는 작년 봄철 이상저온현상과 서리피해 등 기상여건이 좋지 못했고, 병충해 피해가 많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재배면적 전망

- 올해 단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부유 1%, 차랑 4%, 서춘조생 7% 감소하고 기타품종은 3% 증가할 전망이다.
- 조생종 불완전단감인 서춘조생은 태추 등 신품종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3.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5월은 텔라웨어 2kg, 6월 중순~10월은 캠벨얼리, 11~12월은 MBA 가격임. 평년은 2005~09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2010년 12월 가격은 1일부터 21일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입포도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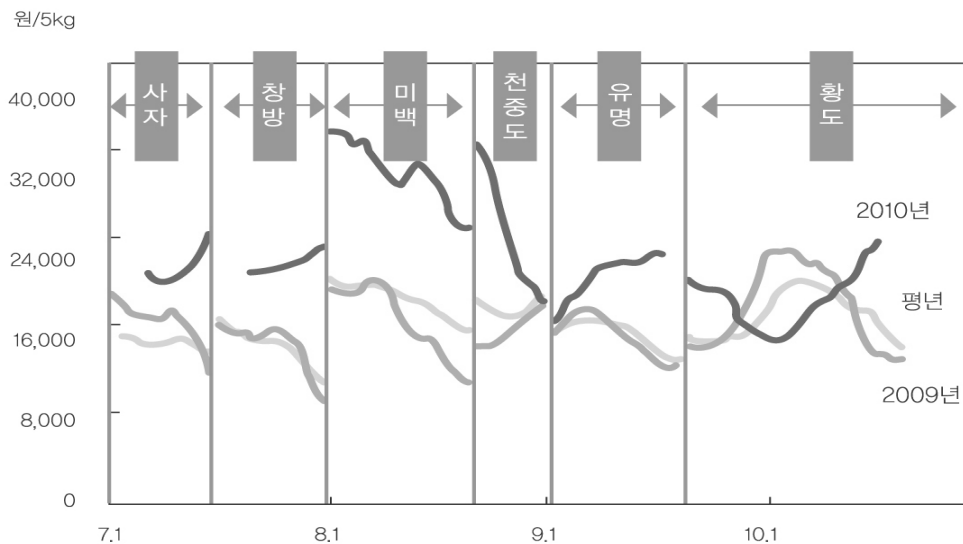
- 1/4분기 포도 수입량은 1만 3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많고, 칠레산 청포도의 비중이 큼. 이는 지난 겨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은 국내산 과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4~5월 수입량은 국내 과일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면적 전망

- 올해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0.4% 증가한 1만 7,646ha로 전망됨. 노지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시설재배면적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온과 무가온 시설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작년 시설포도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시설포도에 대한 과원폐원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임.

3.6. 복숭아

【 유모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동해 피해 및 최근 동향

- 작년과 올해 동해피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작년은 기온이 온난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수피가 터지고 꽃눈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컸으나 올해는 저온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꽃눈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체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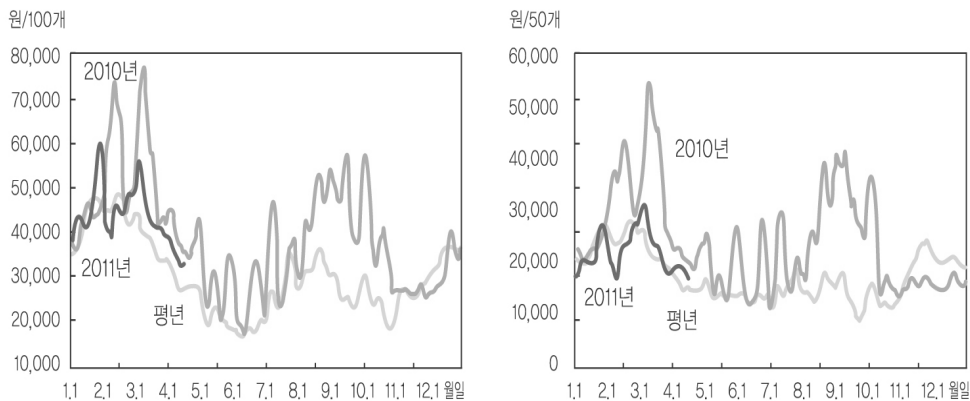
● 재배면적 전망

-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늘어난 1만 4,795ha으로 전망됨. 유모계와 천도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5%, 13% 증가한 1만 1,465ha, 3,330ha으로 전망됨.
- 작년 복숭아 가격이 전년대비 강세를 보였고, 지자체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유모계는 충북 영동·옥천·충주, 천도계는 경북 경산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4. 과채⁹⁾

4.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에 1월 4만 6,600원, 2월 4만 4,800원, 3월 4만 5,200원으로 1월은 작년보다 10% 높았으나, 2월, 3월은 각각 22%, 20% 낮았음. 하지만 이는 2월을 제외하고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시설지원으로 재배면적이 늘었고, 일사량 증가 등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 2만 2,100원, 2월 2만 2,800원, 3월 2만 3,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았음.

●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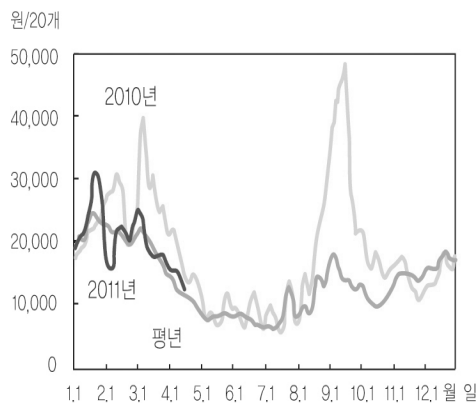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3만 5,800원 수준. 주산지 재배규모가 늘었고 맑고 포근한 날이 많아 출하량 증가하여 가격 하락세 지속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김수림 (surim@krei.re.kr), 지현서 (kpnu@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유정애(syhja@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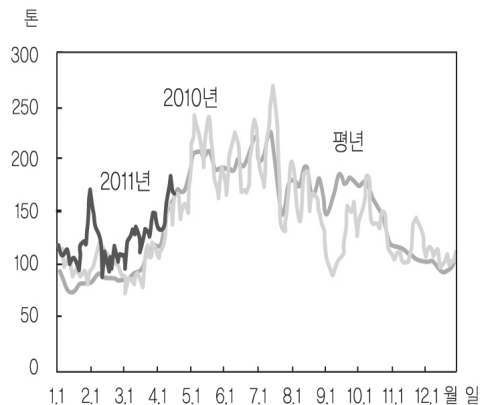
- 취청오이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1만 8,600원으로 전월에 이어 하락세 계속되고 있음.
- 4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포근한 날이 많아 출하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지속될 듯
- 오이 3~5월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보여 5월 이후 가격은 4월보다 하락될 것으로 전망

4.2. 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 1~3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개에 2만 2,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15% 낮고 평년보다 3% 높게 형성되었음.
- 영남지역 주산지의 재배규모 확대와 작황 호조로 출하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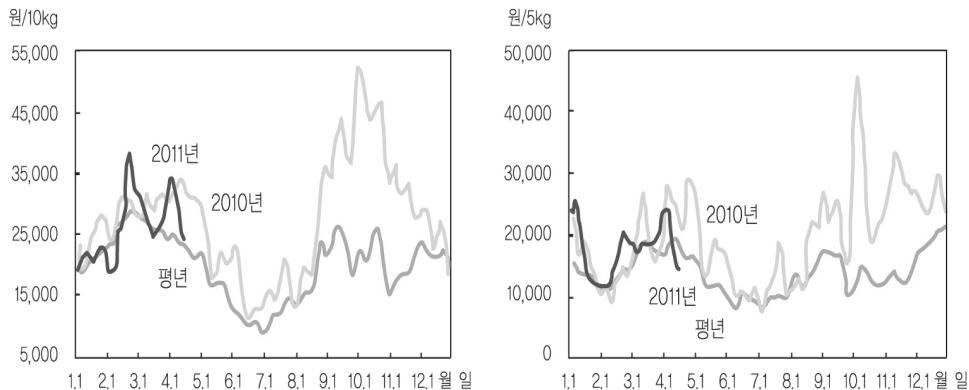
● 2/4분기 전망

- 애호박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상품 20개에 1만 5,900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낮고 평년보다 9% 높음.

-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존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재배 증가가 이루어지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2/4분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작년대비 증가한 주산지 출하면적이 유지되고 기상여건이 양호할 경우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4분기에 이어 하락세 유지될 전망

4.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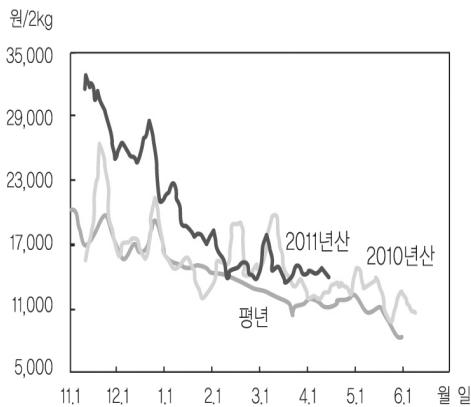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한 상자에 1월 2만 1,500원, 2월 2만 8,500원, 3월 2만 7,9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2만 6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7% 높았음.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한 상자에 1월 1만 7,100원, 2월 1만 6,600원, 3월 1만 9,2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1만 7,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19% 높았음.

●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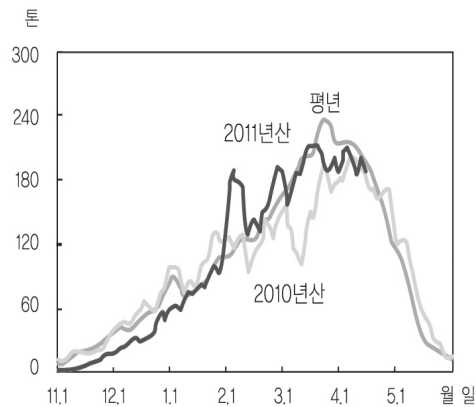
-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일반토마토 상품 10kg에 2만 9,600원, 방울토마토 상품 5kg에 1만 9,500원임.
- 충청, 호남, 영남지역 주산지 기상여건 양호로 착과량이 증가하고 비대가 좋아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출하면적은 비슷하겠으나 단수가 높아 4월, 5월 출하량은 증가하겠음.
- 토마토 4~5월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여 5월 이후 가격은 작년보다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전망

4.4.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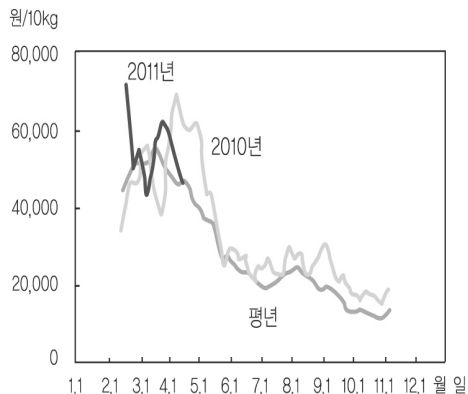
- 딸기 도매가격은 상품 2kg 한 상자에 1월 1만 9,100원, 2월 1만 5천원, 3월 1만 4,9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1만 6,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 23% 높았음.

●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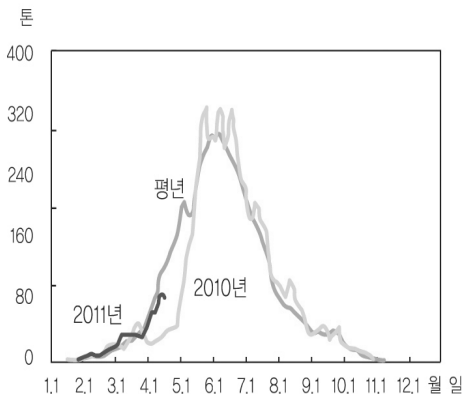
-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상품 2kg에 1만 4,500원임.
- 출하면적은 정식기 기상이변으로 충남, 경남, 전남지역에서 작년보다 감소함. 하지만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년에 비해 일조시간이 많고 병충해가 적어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나타나 출하량은 증가하겠음.
- 4월은 일조시간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중순 이후 가격은 현시세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도 기온상승으로 딸기 가격은 4월의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4.5. 참외¹⁰⁾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자료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 2월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0kg에 6만원으로 작년보다 45% 높은 수준¹¹⁾이며 이는 평년대비 29% 높은 수준
- * 작년 정식기 일조시간 부족 및 저온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의해 재배규모가

10) 2011년 2월부터 15kg 상자에서 10kg 상자로 경량화

11) 참외 가격은 10kg로 환산함.

감소하여 작년보다 반입량 19% 감소

- 3월은 일기호조에 따른 생육양호로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유통단위 변경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어 평년보다 3% 높은 5만 4,000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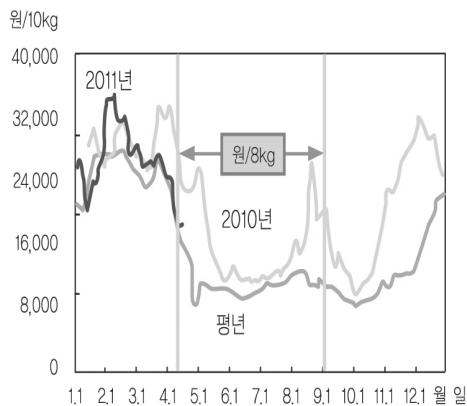
● 2/4분기 전망

-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5만 2,000원으로 전월대비 하락세 이어짐.
- 기상여건이 좋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4~5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의 기상이 급변하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크게 없다면 출하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출하량 증가 전망
- 가격은 작년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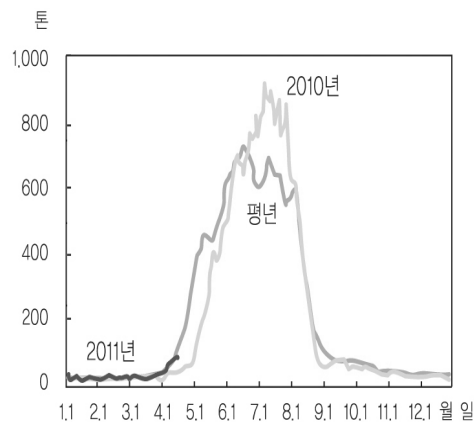
4.6. 수박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자료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 2월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0kg에 3만 2,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10% 높은

수준임.

* 2월까지 영남지역의 지속적인 저온으로 전체적인 생육이 불량하여 작년대비 반입량 4% 감소

- 3월은 경남지역에서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12월의 정식 면적이 적었던 영향으로 반입량이 작년보다 6%늘고, 평년보다 4% 줄어 상품 10kg 상자에 2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5% 낮은 수준임. 이는 평년보다 10% 높은 수준

● 2/4분기 전망

- 수박 상품8kg 한 개의 4월 평균도매가격(1~15일)은 2만원으로 전월대비 하락세
- 현재까지 기상여건의 양호로 작황이 좋아 4월 반입량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전망
- 충청지역의 엽근채류 재배 증가에 따른 정식시기 지연에 의해 6월 출하량 증가할 전망
- * 평년 충남 부여군의 반축성 수박 정식시기 2~3월, 출하시기 4월 하순~5월 상순임. 올해 정식기 저온현상과 엽근채류 재배 증가로 인해 정식이 4월 하순까지 이어져 출하는 5월 중순~7월 중순으로 예상.
- * 평년 6월 주출하지역은 함안, 고령, 고창, 논산 등임.
- 병충해 및 기상급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2/4분기 수박 가격은 작년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

나.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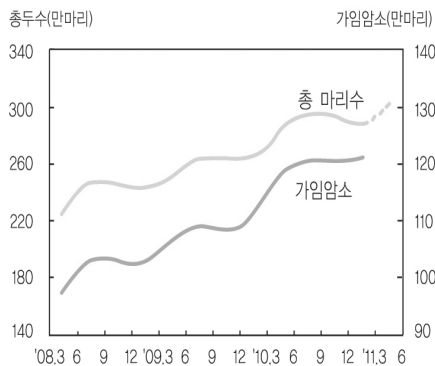
- 정식시기 변동에 관한 2/4분기 출하량 증가 유의
 - 지속적인 저온으로 인한 정식지연과 충청지역의 정식시기 변동에 의해 전국적으로 3월 정식 2% 증가
 - 정식시기 지연으로 인한 6월 출하물량 증가에 유의. 경우에 따라서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축산¹²⁾

5.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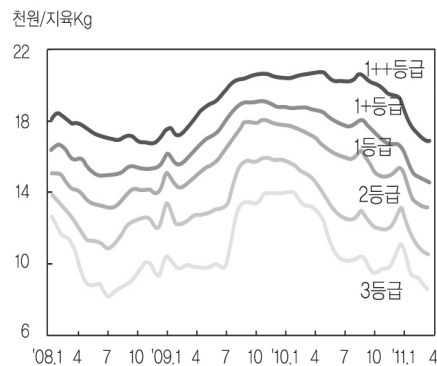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 마리수

- 3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288만두
-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처분으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4.3% 증가하는데 그친 301만 마리로 전망됨.

● 도매가격

- 구제역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2010년 12월~2011년 2월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17.0% 하락한 14,696원
- 6월까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경준형 연구원(jhkyung@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남경수 연구원(ksnam@krei.re.kr) 이 작성하였음.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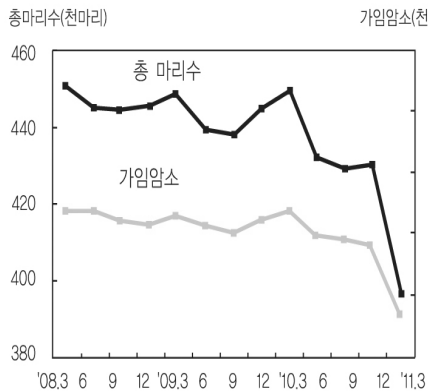
	3월(A)	6월(B)	B/A
사육 마리수	288만 마리	301만 마리	4.5%
1등급 가격 (지육kg)	12~2월 14,696원	3~5월 12,500~13,600원	-14.9~-7.5%

나.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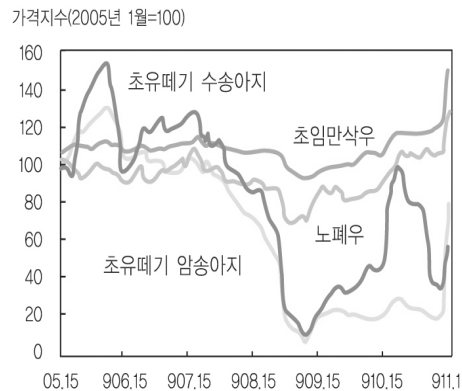
- 홍수출하 자제와 소비 촉진 방안 강구
 - 자조금을 이용한 계획 출하 유도 및 한우고기 소비 증진 중점 홍보
 - 계획 출하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회 확대 마리

5.2. 젓소

【 젓소 사육 마리수 동향 】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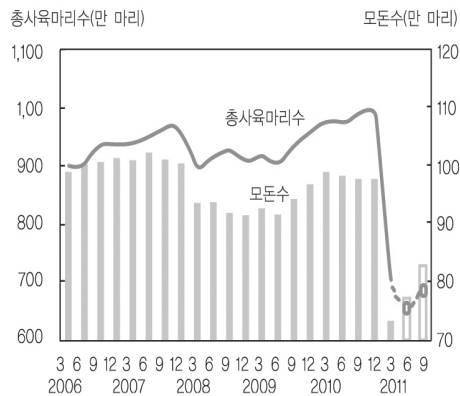
- 사육 마리수
 -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으로 젓소 3만 6천여 마리 매몰처분 됨(12월 사육 마리수의 8.5%).
 - 2011년 3월 젓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대비 11.8% 감소한 39만 6천 마리

- 1세 미만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12.5% 감소한 7만 7천 마리, 1~2세 사육 마리수는 13.1% 감소한 9만 3천 마리였으며, 2세 이상 사육 마리수는 11.0% 감소한 22만 6천 마리
- 구제역 발생으로 인공수정이 제한되어 1세미만 생산잠재력지수 하락이 예상됨.
- 젓소 산지가격
 - 초유떼기(암송아지): 1~3월 초유떼기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1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9% 상승
 - 특히, 구제역 이동제한 후 농장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송아지 입식수요 증가로 3월 초유떼기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29만 7천원으로 강세를 보임.
 - 초유떼기(수송아지): 1~3월 초유떼기 수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18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하락하였지만, 전분기보다 25.7% 하락
 - 초임만삭우: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로 1~3월 초임만삭우 평균 산지가격은 311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 상승하고, 전분기보다 11.8% 상승
- 원유 수급 동향
 - 2010년 총 원유 생산량은 2009년보다 1.8% 감소한 207만 3천 톤이었으며, 같은 시기 원유 소비량은 317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증가
 - 2011년 1~3월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마리수 감소와 두당 원유 생산성 저하로 2010년보다 8.3% 감소한 47만 7천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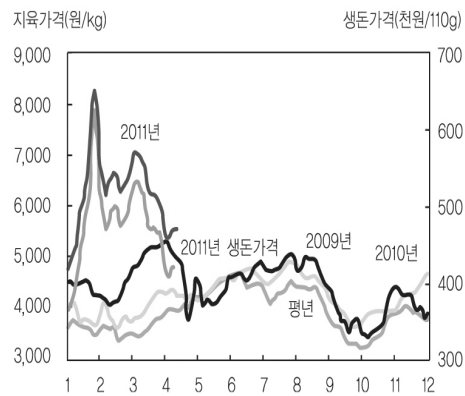
5.3. 돼지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추이 】



【 돼지고기 지육가격 동향 】



● 사육 마리수

- 구제역 여파로 3월 사육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29% 감소한 704만 마리며, 모돈수 감소로 6월까지의 사육 마리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 모든 입식 지연으로 사육 마리수는 9월 이후에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돼지 사육 마리수 전망 】

'11.3(A)	'11.6(B)	B/A
704만 마리	655만 마리	-7.0%

● 지육가격

- 돼지고기 지육 가격은 이동제한해제와 수입량 증가로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4월 하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수입물량 증가로 2분기 지육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6,000~6,400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돼지 지육가격 전망 】

단위: 원/kg

'11.3	'11.4	'11.5	'11.6
6,565	5,700~6,000	6,100~6,300	6,200~6,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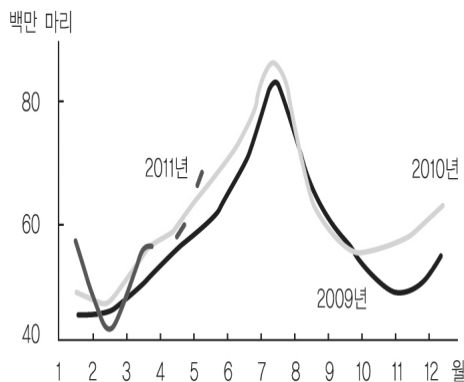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종돈 및 F1 수입 확대, 검역장 추가 확보로 조속한 모돈 입식 유도
 - 종돈 MMA 물량 확대, 현행 18%인 MMA 이외로 수입되는 종돈에 대한 한시적 관세 폐지
 - 종돈 부족 해소 위해 한시적인 무관세 F1 수입 고려
 - 국가 가축 검역소의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생산자단체의 2개 검역소를 활용하고 선상 검역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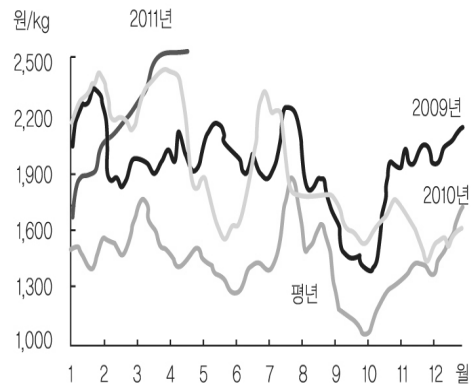
5.4. 육계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도계 마리수 추이 】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 2011년 1분기 동향

- HPAI로 인한 입식기피현상과 종계 도태 마리수 증가로 종계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여, 2월 도계 마리수는 감소하였으나, 1~3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4.0% 증가함(1억 5천 3백만 마리).
- 닭고기 국내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던 1월을 제외한 2~3월 닭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였음.
- 구제역의 영향으로 대체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1월 이후 닭고기 소비량은 전년대비 5~8% 증가함.
- 3월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2,339원(전년 동월대비 1.9%상승)

- 2011년 2분기기 전망

- 돼지고기 가격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 대체수요도 증가하여 5월까지 육계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 되었으나, 6월부터 공급량 증가분이 소비 증가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은 예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4월(1~19일)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2,537원으로 전년보다 7.2%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5월부터 하락세를 보여 6월에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5월: 2,100~2,300원, 6월: 1,800~2,00원).

나. 대책 방향

-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어 자율적 수급조절이 필요
- HPAI에 대한 지속적 예방과 관심요망

5.5.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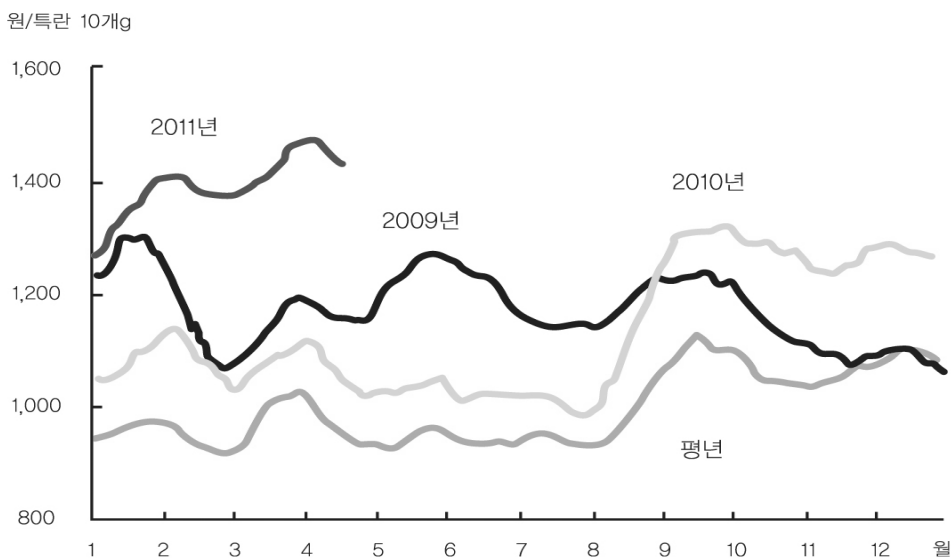
● 사육 마리수

- 2011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동기보다 2.4% 감소한 6천 1백만 마리
- HPAI 발생으로 산란계 181만 마리가 매몰처분 됨(4월 16일 기준).
- 2011년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전년대비 6.5% 감소
→ 사육 마리수 감소세 지속 전망

● 계란 산지가격

-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여 2011년 1~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3.6% 상승한 1,385원(특란 10개)으로 높게 형성되었음.
- 4월(20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1,456원(특란 10개)으로 전년 동월보다 37.0% 상승, 평년보다 49.6% 상승함.
- 4월 부활절 수요가 예상되어 당분간 계란가격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활절을 전후하여 계란가격은 약보험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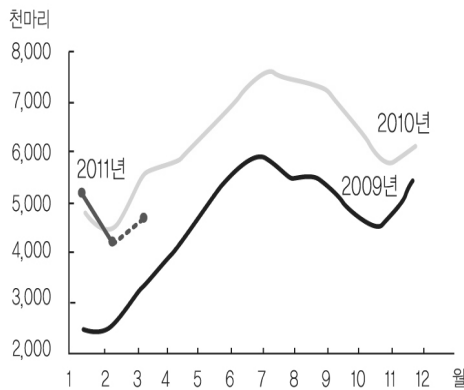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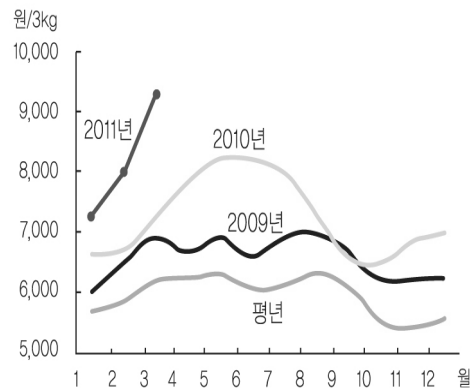
5.6. 오리

가. 2011년 상반기 수급 동향 및 전망

【 도압 마리수 동향 】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주: 3월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한국오리협회

● 사육 및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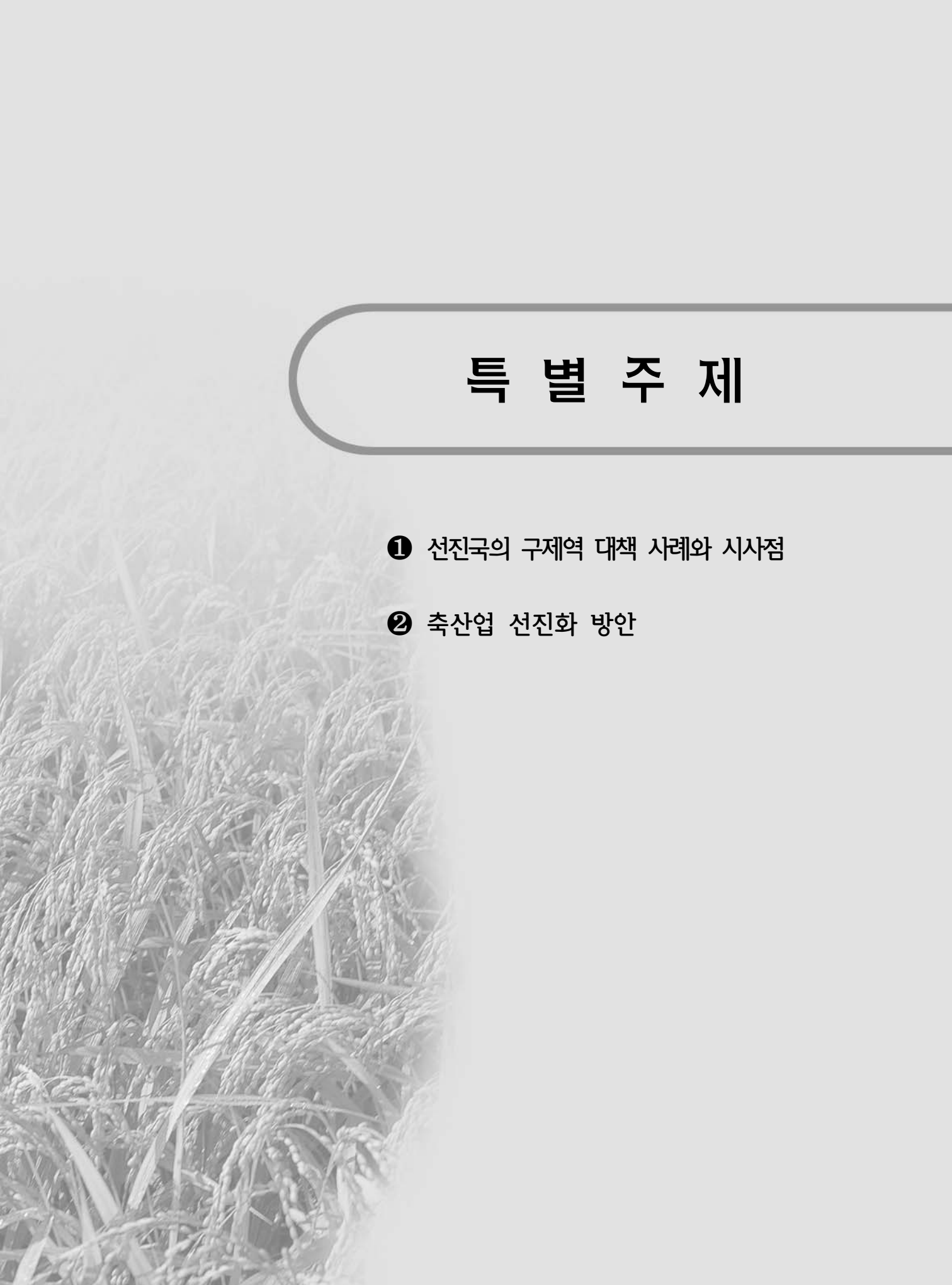
- 종오리 입식 증가에도 불구하고, HPAI 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분으로 2011년 2월 종오리 사육 마리수(패킨종 암컷 기준)는 전년보다 1% 감소한 58만 6천 마리였음.
-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 약 224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어, 1~3월 도압 마리수는 전년보다 5.2% 감소한 1,405만 마리(전분기대비 24.2% 감소)로 추정됨.
- 종오리 마리수 감소로 인하여, 2분기 도압 마리수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1,692만 마리로 전망됨.

● 산지가격

- HPAI 발생으로 오리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여, 2011년 1분기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kg당 8,188원으로 전년보다 19.5% 상승(전분기대비 20.8% 상승)하였음.
- HPAI 발생의 영향으로 오리 산지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분기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kg당 10,400~10,700원으로 전망됨.

나. 대책 방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량 증가 유도
- HPAI 및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 필요
-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F1종오리 입식 자제



특 별 주 제

- ❶ 선진국의 구제역 대책 사례와 시사점
- ❷ 축산업 선진화 방안

【특별 주제 1】

선진국의 구제역 대책 사례와 시사점

허 덕*

1. 서 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가축분뇨,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축산 방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축산인의 교육 및 방역 시설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지역별 사육두수 제한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
- 가축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평시 방역체계”, “발생 시 방역체계”, “방역 정책 방향”, “방역 기술 개발”, “해외 사례 조사” 등 분야별 방역체계 및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해외의 사례 검토는 향후 방역체계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

2. 선진국의 구제역 방역조치 비교

2.1. 세계 구제역 발생 현황

- 2010년 말 기준으로 구제역이 세계적으로 아시아 19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1개국, 아프리카 17개국 등 총 39개국에서 발생함. 현재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위원(huhduk@krei.re.kr)

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백신 비접종 청정국 65개국과 백신 접종 청정국 1개국(우루과이)이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2007년 이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이며, 2010년에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
- 유럽지역에서는 터키가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이며, 영국은 2007년, 러시아는 2010년에 구제역이 발생함. 중남미 지역에서는 에콰도르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며, 2007년 이후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

【 연도별/대륙별 구제역 발생 현황 】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20	19	23	19
유럽	2	1	1	2
오세아니아	-	-	-	-
북미	-	-	-	-
중남미	2	3	2	1
아프리카	20	23	23	17
계	44	46	49	39

자료: OIE(청정국은 OIE 공식인정을 따름)

【 2010년 대륙별 구제역 발생국 현황 】

발생 대륙	국 가
아시아 (19개국)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미얀마,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예멘,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17개국)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디오피아,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남아아프리카공화국
유럽(2개국)	러시아, 터키
중남미(1개국)	에콰도르

자료: <http://www.oie.int>

【 세계 구제역 발생 현황(2010년 12월 기준) 】



2.2. 국가별 중점 구제역 방역조치 현황

- 국가별로 구제역 관련 방역조치는 다양하지만, 가축의 이동제한, 매몰처분, 그리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들은 가축의 이동제한과 더불어 매몰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단, 한국과 홍콩은 2010년까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2011년 들어 한국이 예방접종을 실시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동제한과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잠비크의 경우 매몰처분도 병행하고 있음. 유럽과 북미 지역은 매몰처분을 우선시 하지만 구제역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백신접종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국가별 구제역 방역 대책 현황 】

	국가명	타입	방역조치
아시아	중국	A, O	이동제한, 매몰처분 및 예방접종
	대만	O, SAT2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감염축 동거축 매몰처분
	한국	A, O	이동제한 및 매몰처분
	일본	O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매몰처분
	홍콩	O	이동제한 및 치료
	카자흐스탄	O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매몰처분
	몽골	O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베트남	Asia 1	예방접종
	미얀마	A	예방접종 및 치료
	팔레스타인	O	예방접종 및 치료
유럽	러시아	O	예방접종
아프리카	이집트	O, A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치료
	모잠비크	SAT2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감염축 동거축 매몰처분
	앙골라	SAT2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보츠와나	SAT2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나미비아	SAT1	예방접종
	남아프리카공화국	SAT1	예방접종
	잠비아	O	예방접종
	짐바브웨	SAT2	예방접종

자료: OIE 신고 내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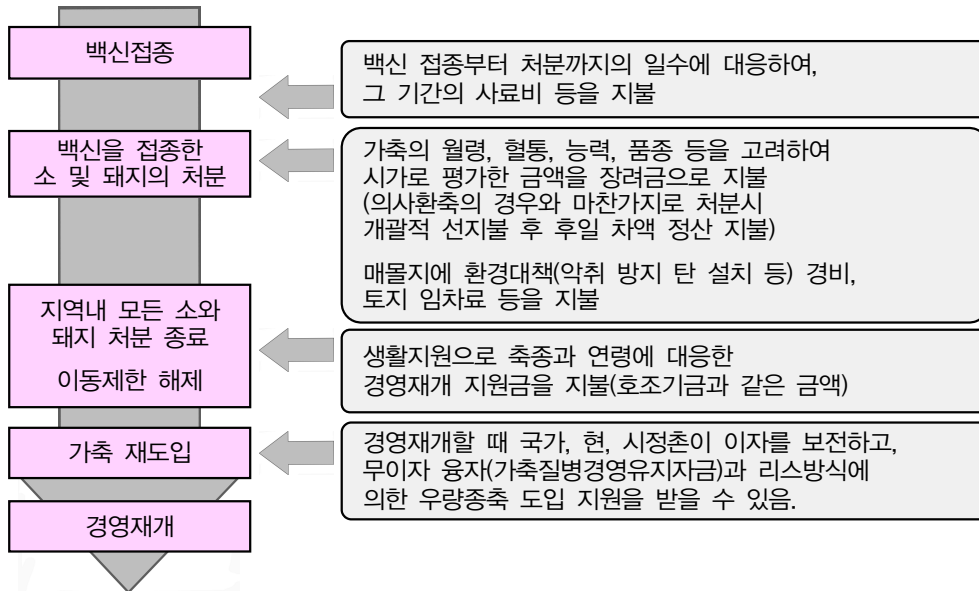
2.3. 주요 국가별 구제역 대책

2.3.1. 일본

- 일본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가별 매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구제역이 확산되었던 2010년 5월에 이동제한지역(10km이내) 가축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후 매몰처분을 한 바 있음. 당시 총 매몰처분 두수는 287,751마리로 그 중 백신 후 매몰처분한 두수는 76,143두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처분 대상이 된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부터 경영재개까지의 지원 방법은 매몰처분 보상금, 경영지원금, 가축 채입식자금, 사료비(가산금) 등 다양함.

【 일본의 백신접종부터 경영재개까지의 경영지원 】

백신 접종부터 경영재개까지의 경영지원



2.3.2. 중국

- 중국의 경우 성(省)별로 구제역 방역 대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전예방대책으로 대상가축에 대해 강제로 백신을 접종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백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실사하고 있음.
- 구제역 발생 시 매몰처분 후 매몰 또는 소각하며, 통상적으로 시가의 60~70%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우려로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2.3.3. 대만

- 대만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백신 비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매몰처분과 링 백신정책을 실시하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자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 바 있음(1997년, 2009년).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가 또는 축사에 대해 매몰처분을 실시하며, 1km 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링 백신을 실시하고 있음. 2009년에는 6개 지역에서 7회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함.
- 농가 매몰처분 보상금(원가의 60%)과 백신접종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해당농가에게 구제긴급자금(3년, 3% 융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백신 비용 이외 대부분의 방역작업관련 비용은 지방정부(대만성)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2.3.4. EU(영국)

- 시대별로 EU국가의 구제역 방역 대책은 다소 상이함. 1970년 이전에는 매몰처분과 백신접종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그 이후 백신접종에 의한 구제역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1990년 이후 매몰처분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01년에는 EU에서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하였음.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매몰처분, 네덜란드는 EU허가를 받아 백신접종 후 매몰처분 정책을 채택함. 네덜란드는 감염농가 중심 반경 2km 내에서 링 백신을 실시하였으나,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백신 접종을 지역단위로 확대한 바 있음.
- 효과적인 구제역 종식을 위해 2003년 EU지침에 매몰처분을 우선 실시하고,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비상시에는 백신이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영국에서는 2001년 구제역 발생 후 매몰처분만 고려하던 정책에서 백신접종도 허가하는 정책으로 확대함. 백신 접종 허가 법률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 백신접종은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 저지를 위해 실시하며, 가축 이동제한을 위해 백신 존을 설정함.

- 보호지역(PZ, 반경 3km), 경계지역(SZ, 10km), 백신지역(VZ)
-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백신지역과 백신경계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백신 경계지역은 백신지역에서 최소 10km를 유지하고 있음. 백신 프로그램 지역 내의 대상 가축은 귀표나 패스포트 등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함.
- 영국에서는 구제역(FMD)과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발생시, 축산농가의 신고 유도 및 신속한 매몰처분을 위해 농가에 시세(Full Market Value)로 보상하고 있음. 질병종류에 따라, 농가 보상 수준은 매몰처분 가축의 질병 감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MD는 가축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

【 영국의 매몰처분 보상정책(Compensation guarantees provided by Defra to the livestock industry) 】

	Full Market Value	< Market Value	Nil
Cattle	Bluetongueⁱ TBⁱⁱⁱ and TSEs (av. market value)		Bovine Viral Diarrhoea^{viii}
Sheep & goats	Foot and Mouth Diseaseⁱⁱ TSEs^{iv}		Mastitis^{viii}
Pigs		Classical Swine Fever^v Comp reduced to 50% market value if disease present	
Poultry & birds		Aujeszky's^{vi} Comp capped at £300, but removed if infected with disease	Salmonella^{viii}
		Poultry diseases (Avian Influenza, Newcastle etc)^{vii} Comp removed if disease present	

자료: Final Report of the England Advisory Group on Responsibility and Cost Sharing, 2010. 12.

【 영국의 매몰처분 보상정책(계속, List of diseases covered by compensation guarantees) 】

Current level of compensation guarantees	List of diseases covered if animal slaughtered is healthy	List of diseases covered if animal slaughtered is diseased
Market value	African Swine Fever; <i>Bluetongue</i> ¹³ ; Foot and Mouth; Poultry diseases; Avian Influenza; Newcastle Disease; Fowl Cholera; Infectious Bronchiti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Pullorum Disease; Fowl Typhoid; Fowl Pox; and Fowl Paralysis Rabies; Classical Swine Fever; and Swine Vesicular Disease Total: 15 [*Tuberculosis/ BSE for buffalo/bison or if no table value/Scrapie if reject pre-determined values.]	Bluetongue; Foot and Mouth Total: 2 [BSE for buffalo/bison or if no table value]
Table valu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n compensating livestock keepers to average market value	Brucellosis (<i>Brucella melitensis</i>); Enzootic Bovine Leukosis;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and Tuberculosis Total: 4	Brucellosis (<i>Brucella melitensis</i>); Enzootic Bovine Leukosis;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and Tuberculosis Total: 4
Capped or fixed % of market value ¹⁴	<i>Aujesky's</i> ¹⁵ <i>Cattle Plague (Rinderpest)</i> ¹⁶ <i>Pleuro-Pneumonia</i> ¹⁷ Total: 3	<i>African Swine Fever</i> ¹⁸ <i>Aujesky's</i> <i>Cattle Plague (Rinderpest)</i> <i>Equine Infectious Anaemia (E1)</i> <i>Pleuro-Pneumonia</i> <i>Rabies</i> ¹⁹ <i>Classical Swine Fever</i> ²⁰ <i>Swine Vesicular Disease</i> ²¹ Total: 8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the valuation of an animal in the event of slaughter. Disputes over valuation are settled by arbitration ²² .	<i>African Horse sickness</i> ²³ ; Contagious agalactia; Contagious Epididymitis; 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Goat Pox; Lumpy Skin Disease; Peste des Petits Ruminants; Rift Valley Fever; Sheep Pox; Teschen Disease; Vesicular Stomatitis; and West Nile Virus Total: 12	<i>African Horse sickness</i> ; Contagious agalactia; Contagious Epididymitis; 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Goat Pox; Lumpy Skin Disease; Peste des Petits Ruminants; Rift Valley Fever; Sheep Pox; Teschen Disease; Vesicular Stomatitis; and West Nile Virus Total: 12
Nil	Equine Infectious Anaemia Total: 1	Poultry diseases: Avian Influenza; Newcastle Disease; Fowl Cholera; Infectious Bronchiti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Pullorum Disease; Fowl Typhoid; Fowl Pox; and Fowl Paralysis Total: 9

- 14 Compensation guarantees which specify caps on market values are currently specified by legislation written nearly three decades ago (*Aujesky's Disease Order 1983*, 'Schedule 3 of the Animal Health Act 1981'). In the event of an outbreak, compensation caps may be reviewed up to a more current monetary level.
- 15 Compensation for *Aujesky's* disease is capped at £300
- 16 Compensation for *Cattle Plague (Rinderpest)* is set at 50% of market value, with a cap of £20 per animal. In the event of an outbreak, it is likely the cap will be revised upwards.
- 17 Compensation for *Pleuro-Pneumonia* is set at 75% market value, with a cap of £30 per animal. In the event of an outbreak, it is likely the cap will be revised upwards.
- 18 Compensation for animals slaughtered which are infected with *African Swine Fever* is set to 50% market value.
- 19 Compensation for animals slaughtered which are infected with *Rabies* is set to 50% market value
- 20 Compensation for animals slaughtered which are infected with *Classical Swine Fever* is set to 50% market value
- 21 Compensation for animals slaughtered which are infected with *Swine Vesicular Disease* is set to market value, less salvage value.

자료: Final Report of the England Advisory Group on Responsibility and Cost Sharing, 2010, 12.

2.3.5.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1952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 그렇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해 격리지역의 가축에 대해 매몰처분을 실시하고, 구제역 근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에 대해 백신 접종도 가능토록 하는 구제역 방역시스템은 갖추고 있음.
- 매몰처분 가축, 폐기처분 대상 사료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처분 가축 보상 규정 등에 따라 처분시점의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보상함.

2.4. 국가별 구제역 발생농가 보상대책 비교

【 국가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비교 】

		한국	일본	대만
매몰 처분 지역	매몰처분 보상금	·가축시세의 100% (중앙정부 100%)	·가축평가액의 100% (중앙 80%, 지방 20%)	·가축시세의 60%
	생계안정 자금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 지급 (상한 1,400만원)	·경영유지자금 무이자 융자(상한: 가축평가액) ·가축공제금 및 상호 부조금(가입자)	·양돈농가 긴급 대출 (3%, 3년 상환, 상한설정)
	가축입식 자금	·매몰처분 보상금 한도 내 융자 지원	·우량가축 입식(리스) 지원	-
이동 제한 지역	경영안정 자금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3%)	·출하지연에 따른 지원	-
	수매 자금	·가축 수매 지원	-	·돼지 구입 및 냉동 보관 보조
기 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자녀 학자금 면제 ·소득세 공제 등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생산자(양돈) 거출금 면제 기간 연장 ·가축시장재개 지원사업 ·기타	·백신 구입비용 지원 ·기타

-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보상 방식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생계안정자금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한국은 가축시가의 10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가축 평가액의 80%를 중앙정부, 나머지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정상 출하가 어려울 경우, 출하지연에 따른 정부지원도 있음.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가축의 수매 및 보관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3.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실패 사례

3.1. 백신 미사용 청정국(영국, 네덜란드, 일본)

- 2001년 2월 영국 에섹스(Essex)주의 도축장에서 최초로 신고된 이후 9개월 동안 영국 전역에서 2,030건이 발생하여 660만 마리 이상의 우제류가 매몰처분됨. 발생 초기부터 예방적 매몰처분을 고수했던 영국 정부는 피해가 커지면서 백신접종을 고려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았음. 구제역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영국 총선을 한 달 연기하기도 한 바 있음. 2002년 2월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
-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정부 지출액은 약 30억 파운드(한화 약 5조 원), 민간 피해액은 약 50억 파운드(한화 약 8조 원)으로 집계됨. 특히 영국 재무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관광·레저산업이 함께 피해를 입으면서, 영국 총생산의 0.2%인 약 20억 파운드의 국가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함.
- 2001년 구제역 발생 후 영국 정부는 예방적 매몰처분만 고려하던 정책에서 상황에 따라 백신접종도 함께 병행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백신접종을 허가하는 법률을 도입함. 그러나 2007년 8월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 122마리의 가축이 매몰처분되고, 전국적으로 11만여 개의 농장에서 가축이

동이 금지된 후 종식됨. 이 때에도 백신 접종 없이 매몰처분 정책만을 이용하여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

-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같은 해 4월 네덜란드까지 전파됨. 네덜란드는 초기에 매몰처분 정책을 적용했지만, 매몰처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매몰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에 링 백신을 적용함.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링 백신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을 종식 시킨 후, 백신 접종 가축을 모두 매몰처분하고,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 백신 접종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셌으며, 매몰처분 가축 마리수는 26만 마리를 넘어섬.
- 일본에서는 작년 3월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발생 농장만을 대상으로 매몰처분을 실시함. 그러나, 질병이 계속 확산되어 5월부터 이동제한구역(10km) 내에 대해 매몰처분을 전제로 백신접종을 실시함. 구제역으로 예방적 매몰처분된 우제류는 총 211,608마리이고, 백신접종 후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매몰처분된 우제류는 총 76,143마리임. 일본은 2011년 2월 5일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

3.2. 백신 사용 청정국(우루과이)

- 중남미 국가인 우루과이는 2000년 10월 구제역 발생시 매몰 처분 정책만을 이용하여 2001년 1월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지만, 같은 해 4월에 다시 구제역이 재발함. 2001년 발생 초기에는 매몰처분 정책만을 실시함. 발생 3일 후 링 백신 접종으로 변경하였고, 5월에는 소에 대해서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한 후, 같은 해 8월에 구제역이 종식되어, 2002년에 OIE로부터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 2001년 구제역 발생 건수는 총 2,057건으로 6,937마리가 매몰처분 되었으며, 총

방역비용은 백신 구입비용 750만 달러를 포함하여 1,360만 달러,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액 등 총 경제적 피해는 약 4억 달러 이상 발생함. 우루과이는 2002년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백신접종을 통해 구제역 재발을 막고,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3.3.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 실패(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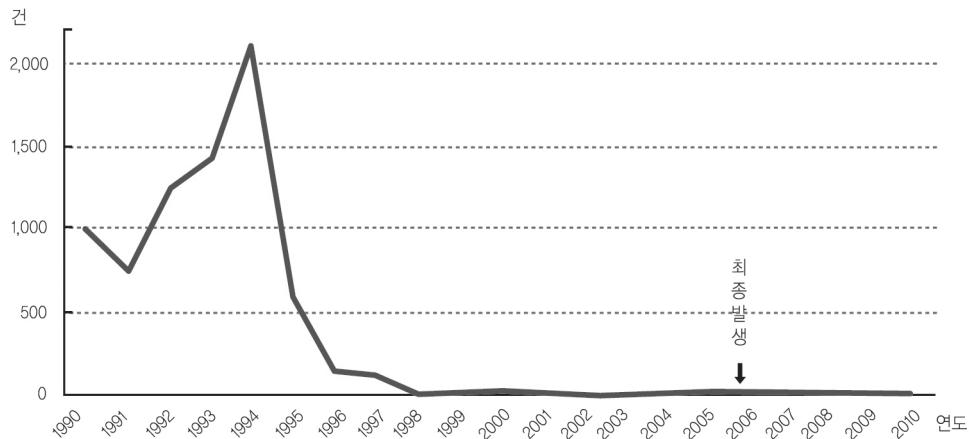
- 대만의 경우 1929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7년 대규모로 발생하여 385만 마리의 우제류를 매몰처분 매몰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함. 이후 2001년까지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2004년 OIE로부터 백신을 사용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2001년 당시 대만의 경제적 손실은 약 69억 달러(한화 약 7조 7천억 원)에 달함.
- 이후 대만정부는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 2008년부터 백신접종 비율을 줄여나가, 같은 해 11월 50%, 2009년 2월에는 10%까지 접종비율을 낮춤. 그러나 2009년에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여 전국 백신접종을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9년 2월 구제역 발생 시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매몰처분과 링 백신접종을 실시했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전국 백신접종 정책으로 변경함.

4. 구제역 백신 후 청정화 구체 사례(브라질)

4.1. 브라질의 구제역 발생 추이

-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초반 구제역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 1998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수년간 발생과 종식을 반복하다가 2006년을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 구제역 발생 건수는 없음.

【 브라질의 구제역 발생 추이 】



자료 : 브라질 농무성(MAPA)

4.2. 구제역 청정성 카테고리 추이

4.2.1. 청정성 카테고리 변천

- 브라질에서는 1965년 리오그란데드술주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백신접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제역 청정화에 대응하고 있음.
- 브라질은 인근 여러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구제역에 관한 공동대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즉, 남미남부공동시장 상설 수의위원회(MERCOSUR CVP),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아메리칸 구제역센터(PANAFTOSA)와 협력하여, 1992년 ‘국가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 제정함. 이로 인해 전국 일체의 구제역 백신 접종 캠페인을 개시하였고, 그 결과, 발생 건수는 1994년 2000 여건을 피크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1998년에는 제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산타카타리나주와 리오그란데술주가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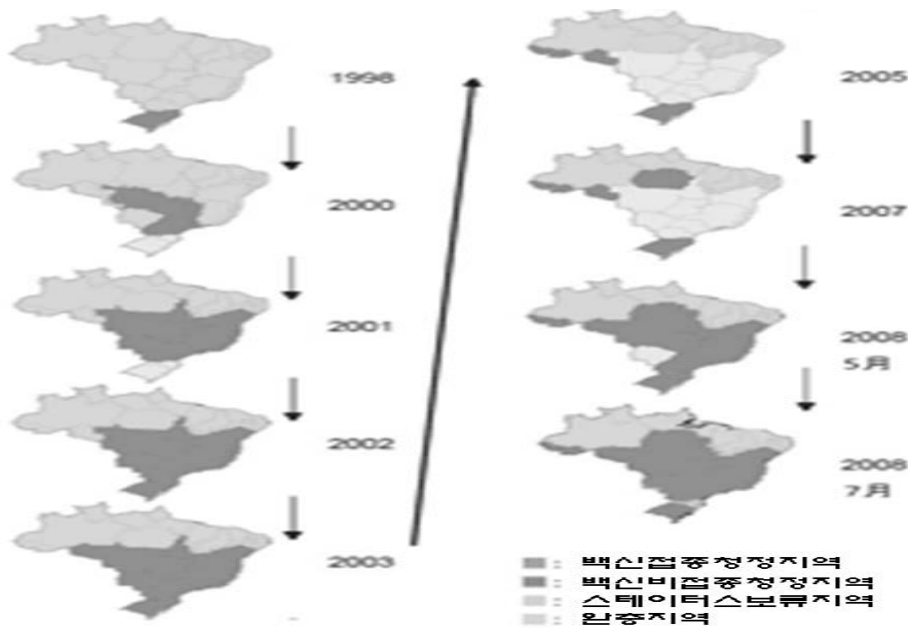
【 브라질의 연도별 청정성 카테고리 지역의 변화 】

연도	백신접종 청정지역	백신비접종 청정지역
1998년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술주	
2000년	(추가)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 제라이스주 (취소)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술주	
2001년	(추가)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렉페주, 토칸첸스주	
2002년	(추가)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술주	
2003년	(추가) 론도니아주	
2005년	(추가) 아쿠레주, 아마조나스주(2도시만) (취소)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 제라이스주,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렉페주, 토칸첸스주	
2007년	(추가) 파라주(남반부) (취소)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 제라이스주,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렉페주, 토칸첸스주	산타카타리나주
2008년	5월: (추가)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제라이스주,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렉페주, 토칸첸스주	
	7월 (추가) 매트그로소드술주	
2010년 현재	아쿠레주, 아마조나스주(2도시만), 론도니아주, 파라주(남반부), 토칸첸스주, 바이아주, 셀렉페주, 매트그로소주, 매트그로소드술주, 고이아스주, 연방지역, 미나스제라이스주, 에스피레토주산토주, 상파울로주, 리오데자네이로주, 파라나주, 리오그란데술주	산타카타리나주

자료 : 브라질 농무성(MAPA)

- 이 후의 청정지역 인정 상황을 보면, 2000년, 2001년 리오그란데스울주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년까지 대부분의 주가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됨. 이후 2005년, 2006년 매트로소드술주와 파라나주에서 새로운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2008년까지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다시 인정받게 됨. 그 사이, 남부에서는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2007년 산타카타리나주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음.

【 브라질의 지역별 청정성 카테고리 변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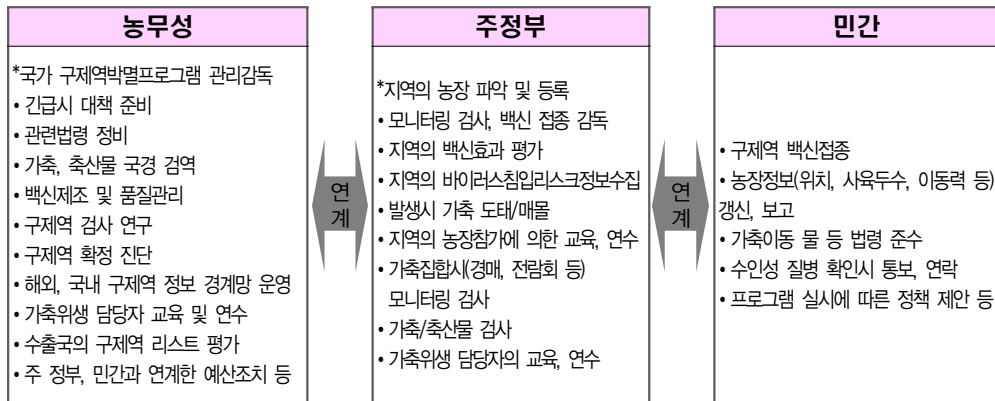
자료 : 브라질 농무성(MAPA)

4.2.2. 역할 분담

- 브라질에서는 구제역 발생 또는 평시 각 기관별로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음. 중앙정부인 농무성은 국가 구제역 프로그램 관리 감독이나 관련 법령의 준비 등 큰 틀을 짜는데 집중하고, 지방 정부인 주정부는 모니터링 검사 및 구제역 발생시 각종 현장 조치 등과 같은 업무와 함께 농가 교육도 담당하고 있음. 민간은 구제역 백신접종이나 농장의 변화상황 보고, 가축이동 및 출하사항 준수, 수인성

질병 확인시 통보·연락 등과 같은 기초단계에서의 의무들과 같은 사항은 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국가, 지방, 민간의 역할 분담) 】



자료 : 브라질 농무성(MAPA)

4.2.3. 이상발견시 연락체계

- 구제역 긴급 시 검사를 받아들이는 체제도 국가 수준에서 정비되어 있음. 바이러스 검사시설은 브라질 농무성 동물위생검사소(LANAGRO)의 3개 시설(본부는 미나스제라이스주 페드로 레오폴도시, 파라주 베렌시, 페르난브코주 레시페시에 2개 지소) 및 PANAFTOSA(리오데자네이로주 두케데카시아스시), 혈청검사는 LANAGRO의 1개 시설(리오그란데드술주 포트아레그레시) 및 주립검사센터 3개 시설(매트그로소주, 상파울로주, 미나스제라이스주)에 배치되어, 24시간 체제로 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에 대응하고 있음.
-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해당 농장 또는 수의사가 지역수의사회에 신고하고, 지역수의사회는 주의 가축위생국에 통보하며, 주 가축위생국은 중앙정부에 통보하여,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검사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

4.2.4. 백신 접종

- 브라질에서는 가을철인 4~5월과 봄철인 10~11월 등 연간 2회의 캠페인 기간을 설정하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2010년에는 소, 물소에 비활성화 처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3가, 즉 O1Campos형, A24Cruzeiro형, C3Indaial형의 혼합 백신을 접종함. 단, 매트그로소주의 볼리비아와의 국경주변에서는 1세 미만의 어린 가축은 연 3회, 같은 주에서 매트그로소드술주에 걸쳐 펼쳐지는 다습초원지대(파라과이강 유역) 및 파라주의 다습초원지대인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연간 1회 접종하고 있음. 2008년에는 밀림지대인 아마조나스주의 소, 물소 약 146만 두에 백신을 접종할 때는 3개월 걸쳐 수의사 약 200명, 고속 보트 약 45척 등이 소요되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약 130만 레알(약 8억 5천만원, 1레알=660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음.

【 지역별 백신 접종 】



자료 : 브라질 농무성(MAPA)

4.3.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산타카타리나주-

-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주는 2000년부터 백신접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OIE로부터 인정된 브라질 내 유일한 주임. 산타카타리나주는 브라질의 남부에 위치하여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고, 면적은 9.5만km²(전국 점유율 1.1%, IBGE), 2009년 기준으로 인구는 612만명(동 3.2%)으로, 브라질에서는 비교적 작은 주 중 하나임.
- 산타카타리나주의 돼지 사육두수는 약 720만 마리(동 21.3%, MAPA)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돼지고기 수출량은 169천 톤(브라질 돼지고기생산수출업협회, ABIPECS)으로 전국의 31.9%를 차지함. 그 외에 전국 점유율은 낮지만, 소는 약 402만 마리(MAPA), 양은 약 25만 7,000마리, 산양은 약 5만 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산타카타리나주의 구제역 대책은 1971년에 시작하여, 백신접종률은 1989년에는 90%를 넘었고, 1996~2000년에는 거의 100%를 유지함. 최종 발생은 1993년 12월이며, 주 서부의 도축장에서 파라나주 유래이면서 산타카타리나주에서 사육된 경력은 없는 돼지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 A형이 분리됨. 주의 서쪽이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약 100km로 짧기 때문에, 이 곳을 통한 바이러스 침입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남북은 파라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의 백신접종 청정지역과 접하고 있어, 주 경계에 모두 67개소의 상설 감시 포인트를 설치하고, 국경과 같은 수준의 체크를 실시함으로써, 주변국은 물론 국내의 다른 주를 통해 유입되는 가축, 축산물 감시에 노력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OIE로부터 인정된 2007년부터 미국용 신선 돼지고기 수출 해금에 소요되는 작업을 개시함. 2008년에는 USDA의 평가 미션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 정부와의 3년간의 교섭 끝에, 2010년 11월 수출이 인정됨. 2011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신선 돼지고기가 미국에 수출되게 될 것으로

예상됨. ABIPECS에서는 수출 해금이 오랜 세월 노력의 성과로 보며, 2014년까지 미국용 연간 신선 돼지고기 수출량은 약 4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무역조건이 가장 어려운 미국으로의 수출 해금을 계기로 향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많은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4. 백신비접종 청정지역 확대 전망

- 브라질에서는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백신 접종, 국경·주 경계감시 강화 등으로 2006년을 마지막으로 구제역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 산타카타리나주와 같은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한층 더 확대해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관계자의 반응은 다름.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최근 쇠고기 수출은 러시아, 중동, 베네주엘라, 홍콩 등 구제역 오염국이나 지역에서의 신선시장 확대가 현저함.
- ② 백신비접종 청정국이나 지역인 EU나 칠레에는 뼈나 림프절 제거, 식육의 숙성(섭씨 2도, 24시간 이상)이나 pH관리(6.0 이하) 등 가공단계에서 코스트를 들어 위생적으로 일정한 처리를 실시한다면, 신선 쇠고기 수출이 가능함.
- ③ 백신접종의 필요성 및 코스트 부담에 대해 생산자가 잘 이해하고 있어, 시스템도 가능하고 있음.
- ④ 백신접종을 중지한 후, 만일 바이러스가 지역에 침입했을 경우는 전국에 감염이 확대되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됨.
- ⑤ 파라과이, 볼리비아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국경감시의 강화에도 한계가 있음.
- ⑥ 산타카타리나주와 같이 주 경계 감시 포인트를 지금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다른 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현재의 국제시장 상황으로 보면, 구제역에 의한 경제활동에 주는 마이너스의 영향은 이전보다 적고, 또 주변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 리스크나 국경이나 주

경계 감시의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새로이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을 늘리기 보다는 백신접종에 의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비용도 리스크도 낮게 억제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파라나주가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이 되었을 경우, 새로이 33개소의 주 경계감시 포인트를 마련하여야 하며, 주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경비를 5,500만 레알 (약 363억원)으로 시산함. 그 만큼의 코스트를 들여도 확실히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만일 발생되면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필요함. 국경이 긴 브라질에서는 모든 불법 수입소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을 전국적으로 중지함은 물론,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됨.

5. 시사점

5.1. 위기 대응 관리 방식의 개선

- 영국의 경우는 구제역 발생 최초 확인 즉시 4단계 위기경보체계 중 최고 수준인 적색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한 신고와 매몰처분, 이동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즉시 백신접종 준비에 돌입하고, 신속하게 매몰처분, 소각·매립, 수송 등 현장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외부자원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SOP도 구제역 발생 초기에 긴급대응조치를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는 있음.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시의 경험을 보면, 군대의 도움 없이 이동통제와 매몰처분 작업을 수행하면서 즉시적인 초기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3단계 경보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초기단계부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인원 및 장비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5.2. 효과적인 검역 및 방역 체계 설정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효과적인 국경검역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의 구제역 발생 방지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요구됨. EU의 경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에 EU-FMD와 같은 공동 방역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경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도 구제역 퇴치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음.
- 국내 방역은 평시에 충분한 방역자재를 비축하고, 단계별 대응체계의 재정비와 주기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영국의 경우 2~3년 주기로 6개월에 걸친 대규모 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꾸준히 방역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보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축종별·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밀집축사지역과 일반 농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SOP 보완작업이 필요함.
- 또한 최초 질병 발생 진단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과 질병 발생 확진 및 대응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앙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가축위생시험소와의 업무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무엇보다도 국내의 경우 비상시 질병 진단과 방역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숙달된 전문가 집단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원 보강과 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은 불가결함.

5.3. 기타 방역 관련 고려사항

- 현재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만약 앞으로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함. 이때 백신접종에서 누락된 가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백신접종 가축의 항체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함.

-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많은 농가들이 현재의 보상금액 수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액 전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평균 거래시세가 아닌 개별농장의 장부 판매가격 실적을 바탕으로 보상을 실시하는데, 개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아울러, 백신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백신을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설비 운용과 개발비용 문제, 백신접종을 중단할 경우 생산된 제품의 처리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동물복지 적용문제가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었음. 네덜란드의 경우는 2001년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적 매몰처분과 사체 매몰과정에서 매몰처리과 지연되고, 매몰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접종을 실시함. 영국의 경우 구제역 발생 시 질병 조기 종식과 매몰처분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매몰처분을 대비한 구체적인 지침과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매립시설의 도입 가능성, 이동식 소각 및 랜더링 장비의 도입 적정성, 축종별 동물복지를 도입한 매몰처분 방식,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립 방법, 효율적인 매립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6. 참고 문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www.alic.go.jp)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www.oie.int)

Final Report of the England Advisory Group on Responsibility and Cost Sharing, 2010. 12.

【특별 주제 2】

축산업 선진화 방안¹⁾

이 명 기*

정부 발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2010년 들어 1월, 4월, 11월에 걸쳐 구제역이 3차례 발생함. 특히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조기 종식을 위해 초기에는 질병 양성축 살처분과 함께 예방적인 살처분 위주로 방역 조치를 취함. 그러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와 돼지에 대한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함.
- 민관의 방역 노력과 백신의 효과 등으로 2011년 2월 25일 이후 4월 15일까지 양성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4월 16일 이후 양성 3건이 추가로 발생함.
- 정부는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서 방역체계 개편, 가축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제 등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들과 함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조기 획득 추진을 발표함. 이 글에서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함.

1) 이 글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내용을 인용·정리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mklee@krei.re.kr)

1.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원인과 방역 체계의 문제점

1.1. 전국적 확산 원인

-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중 안동에서 파주로 전파되고,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됨.
-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판단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됨,
-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소독 등 방역효과가 저하됨.
-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취약함.

1.2. 방역 체계의 문제점

- 발생 초기 강력한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음.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이고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주의」경보가 발령되는데, 영국의 경우 발생 즉시 최고 경보단계인 「Red」가 발령됨.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했음.

2.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2.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2.1.1. 질병발생시 초기 대응체계 강화

- 지난해 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양성 판정 결과 일주일 전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지자체의 항체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남. 질병발생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이 이번 구제역 사태를 통해 드러남.
- 질병발생시 초기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함. 또한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한 일정기간 이동통제를 실시함.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 해제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를 강화함. 이를 위해 예비적 기구로써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함.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시행하게 됨.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의 초기지원을 제도화함.
-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의 사용을 의무화하며,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함.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상황 통제체계 정비 및 숙지 그리고 예방접종·매몰지 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제고함.

2.1.2.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농장단위임. 따라서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의 고취를 위해 차단방역 시설설치 및 질병 방역 교육을 의무화함. 외부와 차단시설 및 소독시설 부재 여부를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지원과 보상체계에 연계함.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독 및 기록관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을 추진함.
-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공동 방역하고 정보를 공유함. 또한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방역 계획 수립·추진함.
-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근무내용의 정기 기록 및 보고의 의무화와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외국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함.

2.1.3. 국경검역체계 강화

-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화함.
 - 2010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내외국인)은 총 22백만 명임. 이중에서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6백만 명으로 75% 이상임.
-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함. 소독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함. 단,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

문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실시함.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하여,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구제역 및 주요 가축질병 상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의 축산농가에 사전 제공 및 교육이 필요
- 출입국에 따른 기본적인 방역 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질병발생 시 책임에 따른 보상 배제 및 축산업 참여 제한 조치 강구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여 농축산물의 반입 관리 체계를 강화함.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함.
-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함. 그리고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일본 등과 협의할 계획임.
- 동북아 및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질병 상시발생국가의 질병 청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공동 연구, 질병 정보 공유, ODA 등을 이용한 방역 관련 기술과 know-how 전수 등)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전문가를 추가 파견(현재 1명)하여 가축질병 원인 연구 및 관련 정보 입수 등을 활성화

2.1.4.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물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함.
-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을 설정함.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함.

-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추진하며,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원을 차등화함.

2.1.5.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모색

- 매몰지 문제와 관련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함. 앞으로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매몰방식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함.
-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실명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앙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보강 상태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영향분석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함.
 - 지자체와 환경부 공동으로 대규모 공공매립지 지정 또는 소각시설 건설,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립 방법 등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고 SOP에 반영함.
- 축산농가 또는 지자체의 사체처리방법 및 매몰지 사전 확보를 의무화 하며, 지자체 단위별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매몰처리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함.

2.1.6. 방역조직 체계 개편

- 지방 방역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 수의과학검역원과 지자체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 연계 극대화가 필요함. 가축위생시험소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있어 비상시 효과적인 통제 및 업무연계가 어려움. 따라서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조직

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함.

-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설립함.
-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현장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방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함.
-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수의사·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자료를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공유·활용하게 됨.

2.2. 예방접종 계획

-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 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조기 획득을 현재의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의 신청요건은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임.
- 금년 2월까지 이미 2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3차 접종은 2차 접종 6개월 후 전 두수에 재접종을 함. 접종 대상은 약 2,100만두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자돈 1,600만두, 기 접종가축 3차 접종 500만두임.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3가지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유전자형에 맞는 백신을 개발할 계획임.

- 자가 접종 매뉴얼의 마련 및 백신 접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백신 접종주기 및 시기, 백신 공급방법, 접종가축 검사방법 및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등을 구체화하며, 3차 접종 전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할 계획임.
-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11년 6월부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백신 전문 연구센터의 설립 및 국내 백신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의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 기능을 수행함.

2.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음.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는 제도임.
-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함.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며, 신규농가는 즉시 시설을 설치해야 함. 대상농가에 대해 기록관리,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를 관리함.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적용하고 교육을 강화함. 등록기준은 현행기준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농가에서 이를 개선하여 모든 농가로 확대하며, 등록축종은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을 확대하여 모든 가금류·우제류를 대상으로 함. 정책자금지원 및 매몰보상금 지원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임.
-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함. 분산 설치·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함.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 추진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을 확대함.

3. 향후 계획

- 정부는 방역 매뉴얼과 축산업 허가제 세부방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현재 농식품부에 조직된 '축산업 선진화 TF'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토론회, 선진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함.
- 또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여 이번 구제역 사태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함. 백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